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슈팅스타

○ 시놉시스

존폐위기에 처한 청주의 호미여고 양궁부.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는데다 폭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얼마 없던 부원마저 거의 빠져 나갔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별다른 경력 없는 생초보 예덕호가, 교장의 계략에 휘말려 신입 코치로 부임한다. 교장은 이 참에 돈이 많이 드는 양궁부를 없애고, 호미여고를 ‘입시명문’으로 바꿀 생각이다.

악조건 속에서 새 코치 예덕호를 맞이한 양궁부. 부원이 달랑 두 명이다. 선배들의 대거 이탈로 얼떨결에 주장을 맡게 된 2학년생 윤희성과, 실력은 뛰어나지만 안하무인에 꾸미기 좋아하는 1학년 전학생 권보미. 하지만 도 대회 단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선 적어도 3명은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오랫동안 백수로 지내온 덕호가, 어렵게 잡은 코치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부서원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주인공인 남지현은 중학교 때까지 계속해 오던 양궁을 그만두고 평범한 여고생으로 살고 있다.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권보미와 반 친구 사이의 청소내기 양궁대결에 끼게 되면서 양궁경력이 밝혀진다. 한 사람의 부원이 아쉬운 예 코치는 지현을 가입시키기 위해 접근하지만, 말 꺼내는 것도 어렵다. 우연한 만남과 오해가 겹쳐 지현으로부터 ‘변태 아저씨’란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지현은 예덕호를 피해 다니던 중 희성의 오빠이자 직지고 주장인 윤규진을 만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지현은 처음 양궁에 애정을 느꼈던 때를 떠올린다. 초등학교 시절, 전국대회 결승을 앞두고 고장 난 활을 고쳐주던 청년 선수의 미소.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바로 그가 지현의 양궁인생을 지탱케 한 장본인이었다. 다음 날 지현은 자진하여 덕호와 함께 안과를 찾고, 중학교 때의 부진이 부동시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새로 렌즈를 맞추고 다시 활을 쏘는데, 결과는 10 같은 9점이다.

지현의 합류로 도 대회 단체전 출전이 확정되자, 교장은 직지고와의 연습경기를 추천한다. 직지고 양궁부는 도내 최강팀이자 과거 덕호가 짝사랑했던 강찬희가 코치

로 있는 팀. 덕호는 과거와 달리 찬희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지만, 지현의 중학교 동창인 진세연의 활약에 밀리면서 큰 점수차로 패한다. 었친 데 덮친 격일까. 본색을 드러 낸 교장은 이번 패배를 거론하며, 도 대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양궁부를 없앨 수도 있다는 통보를 한다.

호미여고 양궁부는 패부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한다. 기초체력 훈련부터 약점보완을 위한 맞춤형 훈련까지, 강도가 매섭다. 최근 지현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양궁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늘었기 때문이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동창회에서 대학 졸업 때까지 등록금을 대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갈수록 어려워지는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놓칠 수 없는 조건이다. 늘 지현과 티격태격하는 보미는, 지현의 성장이 대견하면서도 에이스 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탐탁지 않다.

그 무렵, 윤규진은 동생을 핑계로 호미여고를 자주 찾는다. 보미는 자신의 미모에 반한 거라 생각하지만, 규진의 마음은 사실 지현에게 가 있다. 세 사람의 관계가 묘하게 엮히는 가운데, 강찬희가 규진의 성적하락을 염려해 덕호를 불러낸다. 덕호는 설렘을 안고 찬희를 만나지만, 찬희는 선수 관리나 잘하라며 사무적으로 대한다. 기대가 꺾인 덕호는 과거를 들먹이며 언성을 높이고 둘은 크게 싸운다. 덕호와 찬희는 덕호의 라이벌이었던 박이강과의 과거를 각기 떠올리며 심란해 한다.

드디어 도 대회가 열린다. 8강전을 가볍게 통과한 호미여고. 4강전 상대는 작년 준우승 팀인 충청고다.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호미여고의 승리. 이로써 전국 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게 된다. 7년만의 일이다. 직지고와의 결승을 앞두고 지현은 화장실에 들러 렌즈를 씻는다. 그때 직지고의 라이벌 세연과 부딪히면서 렌즈를 하수구에 빠뜨린다. 지현은 렌즈 없이 결승전을 치르고, 호미여고는 준우승이 무색할 정도의 점수를 내며 패배한다.

호미여고는 회성의 부모가 운영하는 고깃집을 찾아 회식을 한다. 잠시 들른 교장의 표정이 밝지 않다. 마침 직지고도 같은 식당에 자리한다. 회성의 오빠 윤규진 때문이다. 화기애애하면서도, 서로 결승전 상대였던 탓인지 애매한 분위기가 함께 감돈다. 회식을 마치고 뿔뿔이 흩어면서 예덕호와 강찬희가 자연스럽게 둘만의 만남을 갖는다. 두 사람은 기분이 좋아선지, 오랜만에 속 깊은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해 묵은 감정 일부를 털어낸다.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다. 덕호는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한 채 찬희네 집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낸다.

짧은 휴식 뒤 호미여고 양궁부원들은 기말고사를 치른다. 오히려 연습 때보다 열심이다. 양궁부원들이 양궁 외에도 기본 교양을 갖추길 바라는 덕호의 지도방침 덕도 있지만, 교장이 갑자기 유급카드를 꺼내든 탓이 컸다. 모범생 윤희성의 도움으로 무

사히 기말고사를 마친 양궁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합숙훈련에 돌입한다. 목에 땀 걸고 슈팅하기, 한밤의 무덤가 양궁연습 등 덕호가 국가대표 시절의 경험을 살려 고안한, 기상천외한 훈련이 가득하다.

덕호가 합숙훈련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한 것은 팀워크를 높이는 문제였다. 남지현과 권보미는 사사건건 다투었고, 주장인 윤희성에겐 그들을 압도할 카리스마가 없었다. 양궁부는 해병대 캠프에 입소해 100km 행군을 하게 되는데, 보미의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다. 어떻게든 완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현이 보미의 군장을 대신 메기로 한다. 덕호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 한다.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덕호는 지현에게 여분의 렌즈를 선물한다. 도 대회 결승전 때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때 호미여고의 에이스였던 보미. 덕호가 선물을 건네는 모습을 지켜보는데, 지현이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 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전국대회를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호미여고. 지현이 연습하다 말고 문제가 생겼는지 활을 만진다. 덕호가 다가가 활을 고치며 말한다. “스테빌라이저가 고장나도 니 마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 순간, 지현은 어릴 적 활을 고쳐줬던, 그래서 마음 속 이상형으로 남아있던 청년 선수가 바로 덕호였음을 직감한다. 전에 준 렌즈 선물도 웬지 심상치 않게 생각된다. 존경에서 사랑으로 조금씩 감정을 움직여 가는 지현이다. 덕호는 양궁부원을 불러 모아, ‘루틴’을 가르친다. 사선에 설 때 언제나 같은 동작을 취해 평상심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현, 보미, 희성은 각자의 루틴을 고안한다. 한편 보미는 혼자만의 고민이 생겼다. 아버지의 전근이 확정된 것이다.

훈련의 성과가 전국대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단체전에서는 라이벌인 직지고에 극적으로 승리해 결승전 진출. 개인전에서는 남지현이 준결승까지 오른다. 예상 외의 쾌거에 패부를 공언했던 교장마저 기뻐한다. 그런데 시합을 앞두고 보미가 안 보인다. 호미여고 양궁부는 물수패를 막고자 보미 찾기에 나선다. 덕호는 지현에게 개인전을 준비하라 이르지만, 지현은 말을 듣지 않는다. 지현은 양궁대회장 부속 건물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보미를 발견한다. 차근차근 보미의 사연을 듣는 지현. 이전 학교에서 보미가 겪었던 왕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러 튀는 언행을 일삼은 일, 그리고 현재의 심적 불안 등등. 보미를 달래느라 준결승에 지각한 지현은 자동으로 3, 4위전으로 밀리고, 분전 끝에 동메달을 획득한다.

박이강이 이끄는 한국체고와의 결승전을 앞두고 지현은 예덕호와 강찬희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목격한다. 두 사람이 다정히 손을 잡고 대화하는 모습을 본 것. 웬만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던 지현이의 가슴이 쿵덕거린다. 꼭 우승하라는 규진의 응원도 귀에 와 닿지 않는다. 결승전 초반 지현의 난조가 이어진다. 보미는 자기 때문이라 오해하여 덩달아 흔들린다. 지현은 보미를 보며 마음을 다잡고 덕호와 함께 고

안한 루틴을 차근차근 수행한다. 1점차로 뒤지던 마지막 엔드에서 상대팀이 9점을 쏜다. 남은 화살은 하나. 지현이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화살을 날린다.

호미여고 정문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장하다 호미여고 양궁부”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다. “단체전 준우승. 개인전 남지현 동메달” 며칠 후, 공항에 덕호가 나와 있다. 전국대회를 끝으로 유학을 떠나는 찬희를 배웅하려는 것이다. 같이 가자던 찬희의 제안을 거절한 덕호. 같은 시각, 양궁장에서 묵묵히 연습하고 있는 지현에게 규진이 다가온다. 금메달을 두 개나 갖고 있다. 잔뜩 놀리느라 바쁜 윤규진. 어이 없어하는 지현에게 규진이 이렇게 말한다. “런던 올림픽 같이 안 갈래?”

슈팅스타 (Shooting Star)

제 1 화

(인서트)

신문기사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콜라주

1992년도 신문기사

‘바르셀로나에서 금빛 화살 쏘다. 호미여고 출신 000’

1996년도 신문기사

‘애틀랜타 양궁 금메달. 호미여고 다시 한 번 올림픽 금맥을 이어가다.’

1999년도 신문기사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세계신기록. 또 호미여고 000’

2001년도 신문기사

‘전국체전 호미여고 여자양궁 전 종목 석권’

2003년도 신문기사

‘이번 대회 최대 이번. 호미여고 16강 탈락’

2007년도 신문기사

‘호미여고 이번엔 예선 탈락’

2010년도 신문기사

‘예선 탈락에 연이은 악재. 존폐 위기의 호미여고 양궁부. 집단 패싸움 벌여...’

#1. 호미여고 원경. 오후.

#2. 호미여고 정문에서부터 학교 전경. 오후.

운동장에는 체육시간인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교장 E (굽신거리며) 예~ 이사장님.

#3. 호미여고 교장실. 오후.

이사장과 통화중인 교장.

교장 이번 건은 제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그럼요. 학부모들하고도 합의가 잘 됐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코치도 어제부로 사표 수리 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코치로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연 표정을 바꾸며 양손으로 책상을 내리친다.

교장 (혼잣말로) 이놈의 양궁부. 진작 없었어야 했는데.

마침 들려오는 노크소리.

교장 들어와요.

문이 열리고, 교감 들어온다.

교감 말씀하신 대로 양궁협회에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만, 이사장님이 아시면...

교장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우리학교 양궁부 다 죽은 지가 언젠데. 그영감, 지금이 아직도 20세기인 줄 아나. 이사장한테 내가 잘 둘러댈테니 걱정 말고, 알았으니 나가봐요.

교장 일어나서 잔뜩 찌푸린 얼굴로 창 밖 운동장 한편에 있는 양궁장을 본다.

#4. 호미여고 하늘. 오후.

자연스럽게 변두리 동네로 디줄브

#5. 동네 편의점 앞. 오후.

편의점 앞 테이블. 부스스한 머리에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는 덕호. 컵라면 옆엔 벼룩시장이 펼쳐져 있다.

덕호 (의욕 없이 벼룩시장을 넘기며 혼잣말로) 먹고 살기 힘드네. (한숨)

편의점 문이 열리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걸어 나오고,
곧바로 편의점 주인아줌마가 뛰쳐나온다.

편의점 주인 저 도둑놈. 야, 거기 안 서? 도둑놈 잡아라! 도둑놈!!!

주인의 목소리에 남자아이 다급하게 도망친다.

덕호가 앉아 있는 테이블 옆을 지날 때, 덕호 슬쩍 한 쪽 다리를 내민다.

남자아이 (다리에 걸려 넘어지며) 아! (덕호 노려보며) 아- 씨.

덕호 (넘어져 일어서려는 남자아이의 뒷목을 잡아끌며)

남자아이 (반항하며) 아저씨 뭐예요? 이거 봐요!!!

덕호 (자못 빠기면서) 나? 나는 도둑놈 잡아주는 착한 아저씨다. (편의점 주인 얼굴을 쳐다본다)

편의점 주인 (남자아이를 보며) 잡았다 이 놈. 총각 잠깐만 붙잡아 놓고 있을래요?

덕호 네?

편의점 주인 (말투를 바꿔, 남자아이를 바라보며) 너, 이번엔 가만히 안 놔둔다. 경찰을 부르던가 해야지.

덕호 아, 예.. 예.

편의점 주인이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 남아 있던 손님의 계산을 처리하고, 동시에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남자아이 아 진짜 이 아저씨가! (덕호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덕호 (다시 뒷목을 잡아채며) 이 자식이 그래도 반성을 모르고! 이따 주인 아줌마 오시거든 ‘잘못했습니다~’ 꼭 해라! (말하며 억지로 남자아이의 머리를 자기 쪽으로 내리누르는) 안 그럼 진짜 소년원 갈지도 몰라.

남자아이 (겉에 잔뜩 질렸다) 아! 이거 봐요! 봐아-!!

약 10m 전방에서 어린 남동생 지훈과 함께 걸어오는 지현. 지현은 약간 구식의 안경을 쓰고 있다. 덕호에게 붙잡혀 있던 남자아이가 이들을 발견한다.

남자아이 (지현 남매를 보고는 무언가 생각났는지 잠시 소리 지르는 걸 멈추고 뻘뻘 덕호를 본다) 살려줘, 이 아저씨가 날... 어디로... (잠시 멈

추었다가) 새우잡이는 싫엇!!!
덕호 (당황하여) 뭐, 인마?! 조용히 못 해!!

지훈 (남자아이와 덕호 발견하고는) 누나! 저-기 나쁜 아저씨!

지현, 동생이 가리키는 쪽 안경을 만지면서 한쪽 눈을 찡그리며 쳐다본다.
지현의 시야에 남자아이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덕호가 들어온다.

지훈 누나! 저 아저씨가 저 형아 괴롭히는 거 맞지?
지현 (가만 보더니) 응. 그런 거 같은데?

지현의 대답을 듣고 지훈,
결의에 찬 표정으로 손에 들고 있던 ‘큐피드’라고 적힌 장난감 활에 화살을 걸고
시위를 당긴다.

지현 (동생을 말리며) 지훈아, 잠...

지현이 말릴 틈도 없이, 지훈은 덕호를 향해 화살을 쏜다.
지현 급하게 동생의 활을 가로챈다.

덕호 (이마에 장난감 화살이 붙은 채로) 아!

덕호가 당황해 한눈을 판 사이, 남자아이 도망간다.

덕호 (이마에 붙은 화살을 떼어내며) 뭐야 이건?
(두리번거리다 활을 든 지현과 눈이 마주치면) 니가 그랬냐? 아
놔~
지현 (당황한 듯 말 못하고).....

덕호, 지현 쪽으로 다가간다.
지현의 손에는 ‘큐피드’라고 적힌 장난감 활이 들려있다.

덕호 야! 큐피드! (활을 지현얼굴에 들이밀며) 뭐야? 갑자기 이런 걸 쏘대
고. 너 때문에 도둑놈도 잡았다 놓쳤잖아! 어?
지훈 (끼어들며) 아저씨 나쁜 사람이잖아! 우리 누나한테 그러지 마!
덕호 (험악한 얼굴로) 야! 꼬마! 넌 또 뭐야? 쪼그만 애들이 선량한 시민
을 나쁜 놈으로 몰아버리네.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는데)

지훈 놀라 울음 터뜨리고

지현 (못 참겠다는 듯) 아저씨!!! 왜 엘 울리고 그래요?

그때 편의점 주인아줌마 등장

편의점 주인 총각, 아까 그 놈 어떡했어요? (다소 화가 난 듯) 놓친 거야? 아...

지현, 그 소리에 뜨끔하며 덕호 보는데

덕호는 오히려 이것 보라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현 본다.

#6. 김수녕 양궁장. 저녁.

사람들이 저녁 연습을 하고 있다.

양궁장 안에서 활 쏘는 연습중인 보미. 핑크색 조끼에 핑크색 활이다.

저만치서 보미 아빠, 보미에게로 걸어온다.

보미 아빠 (눈치 살피며)어때? 예천보단 여기가 더 낫지? 아빠가 들어보니까 여기서 국가대표선발전도 하고 그런다더라. 나중에 너도 여기서 선발전하게 될 줄 모르는데 미리부터 적응해 두면 좋잖아? (괜히 오버하며)이제 이 김수녕양궁장에서 너도 김수녕같이 세계 최고의 여궁사가 되는거야!

보미 (시위를 당기려던 활을 내려 놓고) 알았어. 그만! 아빠 미안해서 그러는 거 다 알아.

보미 아빠 (비위 맞추며) 에이- 들켰구나? 아빠가 여기 공군사관학교로 발령이 났는데 어떡하겠냐. 딸래미랑 떨어져 살긴 싫고. 한 번만 더 봐주라 딸!

보미 그러니까 알았다잖아. 이번이 마지막이야! 또 전학 얘기 나왔담 봐. 그래도 여긴 예천보다 나아보이긴 하지만.

보미 아빠 (늑살 좋게) 그럼 그럼. 이제 너 졸업하기 전까지는 전학 갈 일 없을 거야. 그건 그렇고 우리 딸, 학교는 결정했어? 내일까지는 전학수속 밟아야 되는데.

보미 (다시 활 들어올리며) 응.

보미 아빠 어디? 직지고? 아무래도 청주에선 거기 양궁부가 켈 낫지?

보미 (시위 바짝 당기며 의미심장하게) 아니, 나는 내가 빛날 수 있는 곳으로 갈거야. (활 쏜다)

#7. 덕호 집. 저녁.

방바닥에 한 손을 괴고 누운 채로 졸고 있는 덕호. 턱을 괴던 손이 미끄러지지만
꾸뚝꾸뚝 졸고 있다.

옆에는 아까 보던 벼룩시장이 널부러져 있다.

그때, 방문 열리며 덕호 엄마 들어온다.

덕호 엄마 (한심하다는 듯) 아니, 아직 집에서 비행이 마냥 그라고 있는겨?
 다 큰 놈한테 호초리를 들 수도 없고 이걸 워쩐다?

덕호, 아직 누운 채로 있다.

덕호 엄마 (소리 높여서) 엄니가 왔으면 불무불무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지, 퍼
 띄 안 인나!!

덕호,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고 앉으면,

덕호 엄마 한 숨 쉬고는 방을 나가버린다.

답답한 마음에 마른 입맛만 다시다가 리모컨으로 TV를 켜는 덕호.

아시안게임 양궁 중계 중이다.

캐스터 네, 오늘 아시안 게임 남자 양궁 중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
 메달리스트죠? 현재 한국체고 감독을 맡고 계신 박이강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이강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네, 안녕하세요. 박이강입니다.

캐스터 제 소개는 마음에 드셨나요?

이강 (웃음) 네, 영광입니다.

TV속 이강을 보고는 덕호의 표정 굳는다. 리모컨을 든 채 꼼짝 않고 TV를 본다.

캐스터 오늘 드디어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 양궁이, 남자 개인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에 나서게 되었는데요. 어떠세요? 해설 위원님
 께서는 양궁 전 종목 석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강 네. 경기 시작 전에 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고 이때까지 선수들
 훈련을 체크해 봤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
 습니다.

캐스터 네, 다행히 오늘 날씨도 좋아서요. 박이강 해설위원님 말씀대로 우

리 선수들이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밖에서 TV 소리를 들은 덕호 엄마 방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

덕호 엄마 저거, 이강이 아니여?

덕호, 말 없으면

덕호 엄마 위째 저눔은 저래 잘 나가는 거? 옛날에는 너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그랬잖여. 저눔은 금메달도 따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왜 이라? (한숨 쉬고 손으로 가슴을 톡톡 치며) 내가 그냥 깡깡해 죽것 씨.

대꾸도 않고 굳은 표정으로 TV를 보는 덕호.
다시 중계화면 클로즈업.

#8. 찬희 집 거실. 같은 시각.

TV에는 계속 이강의 중계화면이 나오고 있다.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는 찬희. 덩덤한 표정이지만 눈빛은 흔들린다.

찬희, 소파 앞 테이블 밑에서 액자를 하나 꺼낸다.

액자 속엔 10년 전 쯤 돼 보이는 덕호, 찬희, 이강이 나란히 서서

양궁복 차림으로 웃고 있다. 왼쪽 가슴에 보이는 태극마크.

다시 액자를 바라보는 찬희의 얼굴 C.U.

#9. 지현 집. 저녁.

손바닥만 한 거실에서 고구마를 까먹고 있는 지현 가족.

거실 한 쪽 편엔 ‘청주고구마’라고 쓰여 진 박스가 몇 개 쌓여 있다.

지훈 엄마! 우리 또 고구마야?

지현 엄마 (어르듯이) 왜? 우리 지훈이 고구마 질려?

지훈 어제도 밥 대신 고구마였잖아!

지현 아빠 어제도 고구마 먹고 오늘도 고구마 먹으면 좋지 뭘!

지훈 싫어!!! 나 과자 사줘!

지현 (지훈 흘겨보며) 잠자코 먹어.

지현 엄마 지훈아. 우리 고구마 거의 다 먹어가. 이거 얼른 먹고 나면 엄마가

밥 맛있게 해 줄게. 우리 지훈이 착하지? 엄마가 내일은 맛탕 맛있게 해줄게!

지훈 싫어! 그것도 고구마잖아!

지현 (쥐어박을 기세로) 남지훈, 너...!!

지훈 누난, 고구마 좋아해서 그렇지. 난 고구마 싫어!!

지훈 화가 난 듯 고구마를 던져두고, 한쪽 구석에 있는 구식 컴퓨터의 전원을 켜다.

지현 엄마와 아빠는 미안한 기색이고,

지현은 모르는 척 고구마를 한 입 가득 베어 물고는 여전히 맛있게 먹는다.

#10. 다시 덕호 집. 밤

방에 맥없이 누워있는 덕호.

방금 전 TV 속의 이강을 떠올린다.

그때 휴대폰 울린다.

덕호 (누운채로) 여보세요.

#11. 술집. 밤

덕호가 술집으로 들어서자 일어나 알은 척하는 선배.

선배 왔냐? 이거 얼마만이야!

덕호 선배가 여기까진 웬 일이에요?

선배 어, 나 여기 양궁협회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어. 너 청주 있다는 소식 듣고 바로 연락했지. 너야말로 여기서 뭐하고 지내냐?

덕호 그냥, 뭐. (표정이 살짝 굳는데)

선배 (눈치 없게) 너 쪽 논다더니, 아직이냐? 짹짹하다. 뭐, 사는 게 쉽진 않더라. 나도 단체 금메달이라도 하나 따서 이리고 있지. 안 그랬으면 양궁협회에서 벌써 쫓겨났다.

덕호 (억지 웃음) 네... 뭐.

선배 그건 그렇고 여기 양궁장 팬클럽이라. 내가 지금 가르치는 애들이 있는데 나중에 청주 와서 전지훈련 해야겠더라고.

덕호 (별 관심 없다는 듯) 많이들 와요. 신궁의 기를 받겠다나...

선배 너.. 여전히 양궁 안하냐?

덕호 (아직 굳은 표정을 풀지 못한 채) ...

선배 그 일 있고나서 완전히 그만둔 거야?

덕호 (멋쩍게) 뭐...
선배 야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러지 말고 다시 이쪽으로 생각해봐.
(팬히 하는 소리로) 내가 협회에 일자리라도 있는지 알아봐줘?
덕호 ..됐어요.
선배 야야 너랑 내가 어떤 사이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인마! 아,
찬희도 청주 와 있다는 거 같던데 소식 들었냐? 온 김에 찬희도 만
나고 가면 좋겠는데.

덕호 흠칫 놀란 채로 가만있다.
이내 속 타는 듯 앞에 놓인 맥주를 들이킨다.

#12. 호미여고 앞. 밤.

호미여고 교문 앞.
취기가 있어 보이는 덕호와 선배가 걸어간다.

선배 저-기서 택시 잡아타고 나는 갈게. 다음에 오면 꼭 2차까지 쏜다
내가. 내일 일찍 협회 일이 있어서 오늘은 가 봐야겠다. 요새 좀 바
빠서 말이야.
덕호 네. 그렇게 하세요. 택시 잡아드릴게요.
선배 됐어 인마. (하더니 호미여고 문패를 보고는) 어? 여기가 호미여고
냐?

덕호 의아한 듯 쳐다보면

선배 (화가 난 듯) 여기가 악덕업주 소굴이었구만! 그 돈에 양궁코치를
구하겠다고!
덕호 그게 무슨 소리에요?
선배 아니, 이 놈들이 코치 채용한다고 협회로 협조문을 하나 보내 왔는
데, 월급이 아주...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뛰고 말지. 이러니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외국으로 다 가는 거 아니냐.
덕호 호미여고 옛날에 참 잘 나갔는데...
선배 (건성으로) 야, 너도 외국에 자리 하나 알아봐줄까?

덕호 아무런 대꾸도 않은 채 호미여고 명패를 보는데.

선배 덕호야. 이제 그만 들어가 봐. 형이 담에 또 연락하마. 간다!

덕호 네, 선배 그림 들어가요.

선배 걸어가는 모습 서서 보다가
다시 호미여고 명패를 물끄러미 보는 덕호의 처량한 뒷모습

#13. 호미여고 앞 등굣길. 아침.

고구마를 입 안 가득 넣고 고구마 껍질 벗기며 등교중인 지현.
지현 앞으로 호미여고 교복을 입은 채 걸어가고 있는 보미.
껍질 벗기느라 앞을 못 보고 걸어가던 지현이 발을 헛디뎠다 보미와 부딪치고
고구마를 보미의 교복 블라우스에 찢어버린다.

보미 (기겁하며) 악! 뭐야!!!

지현, 보미의 블라우스에 묻은 고구마 자국을 보고는 놀라 선다.

#14. 호미여고 교장실. 아침.

교감, 자리에 앉아 있는 교장에게 보고 중이다.

교감 지금 면접 준비 다 됐습니다. 두 명이 지원을 했구요. 지금 가서 보
시면 됩니다.

교장 그래요? 그래도 지원하는 사람은 있었나 보네? 교감선생님이 봤을
땐 그 두 명, 어땠던가요?

교감 제가 보기에, 적임자가 하나 나타난 것 같습니다.

교장 (의미심장한 웃음) 그거 잘 됐네요. 양궁부 폐부되기까지 자리만 잘
지켜주고 있으면 되니까. 욕심 없고 순진한 친구가 좋은데... 괜히
양궁부를 키워보겠다는 헛소리하는 놈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아
무튼. 가 볼까요.

#15. 회의실. 아침.

면접관 자리에 앉아 있는 교장과 교감.

그 앞으로 양복차림의 덕호, 그리고 40대로 보이는 다른 지원자가 하나 앉아 있다.

교장 그래, 이동석씨는 어떤 경력이 있나요?

지원자 저는 이력서에도 기재한 바와 같이 86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은메

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선수 생활 은퇴한 뒤론 초등학교에서 코치 생활을 해 왔습니다.

교장 음. 그럼 예덕호씨는 무슨 경력이 있나요? 별다른 수상경력은 없는 것 같은데.

덕호 아... 네. 따로 수상 경력은 없지만, 시드니 올림픽 국가대표였습니다.

교장 (반색하며) 하지만 메달은 없는 거죠? (그러다 다시 지원자 쪽 보고는) 그럼, 이동석씨는 왜 이곳 코치로 지원 했나요?

지원자 네, 좀 더 큰 무대에서 지도자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학생을 가르쳤고, 챔피언도 여럿 길렀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곧 국가대표가 될 선수들을 가르쳐 보고 싶습니다.

교장 (교감을 슬쩍 보면서 얼굴 반쪽을 찡그린다) 그럼, 예덕호씨는?

덕호 (준비가 전혀 안 된 듯) 아.. 그게.. 저는 집도 가깝고 양궁도 예전에..

교장 (말 자르며) 아주 훌륭한데요? 집이 가깝다는 건 성실성의 징표이죠. 적어도 지각은 안 하겠네, 허허(교감과 마주보며 애매한 웃음을 짓는다).

덕호와 지원자 둘 다 교장의 반응에 의아한 표정이다.
교장과 교감 속삭이며 뭔가 의논한다.

교감 면접 본다고 수고하셨구요. 곧 연락 드리겠습니다.

지원자 먼저 나가고 덕호 뒤따라 나가려는데.

교장 예덕호씨! 예덕호씨는 잠시 남아 주시죠.

#16. 다시 호미여고 앞 등굣길. 오전.

보미 눈을 부라리며 지현을 노려보고
지현 잔뜩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다.

지현 (어쩔 줄 몰라 하며) 아..정말..미안해!
보미 (악에 받쳐) 너 이거 어쩔 거야? 오늘 처음 입은 교복이란 말이야. 첫날부터 진짜 이게 뭐야. 재수 없게!!!

지현 입술을 깨물며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보미 (교복에 묻은 고구마 자국 봤다가 다시 지현 보고) 아, 진짜 이걸
 뭐야! (쿵쿵거리다, 다시 교복을 보면서) 고구마 색깔이 뭐 이래, 이
 거 찍은 거 아냐?!

지현 (정직하게) 자색고구마라...

보미 아- 진짜.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혼자 호들갑떨더니 포기한 듯 손
 을 내밀며) 됐고. 그냥 세탁비나 내봐.

지현 나, 지금 세탁비.. 없는데.

보미 (어이없어 잠시 멈칫하다가) 그럼, 니 꺼 벗어.

지현 (예상치 못한 요구에) ...뭐?

보미 말 못 알아들어? 니 교복 벗으라구. 상식적으로 전학 온 첫 날, 이
 렇게 더러운 옷을 입을 순 없잖아. 스타일 구겨지게. 얼른 벗어!

할 말을 잃고 멈춰 서 있는 지현.

#17. 다시 회의실. 오전.

다시 자리에 앉아 있는 덕호.

교감 우리는 예덕호씨를 채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덕호 (놀란) 네? ...벌써요?

교감 예덕호씨야말로 우리 학교 양궁부가 바라는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
 했습니다.

덕호 아니..누가 봐도 아까 그 분이...

교장 (웃음) 겸손하기도 하시지. 저희는 예덕호씨한테서 가능성을 발견했
 어요. 믿음과 성실, 그런 가치들. 교편을 오래 잡다 보면 한 눈에 그
 런 게 보이지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코치.

덕호 (입으로 되뇌이는) 예..코..치.....(하더니 정신이 번뜩하고)아! 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장 아, 아니요. 마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학원체육이 성과주의
 에 매달려선 곤란하다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이뤄져야죠.

덕호 예, 예. 그럼요.

교장 이제 예코치 직장이 될 곳인데, 시간 되면 학교 내부랑 양궁장 좀
 둘러보고 가세요.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시고요.

좋아하는 덕호를 보며 흡족해하는 교장과 교감.

#18. 호미여고 양궁장 근처 화장실 안. 오전.

보미가 서 있고 그 옆에서 지현이가 자기 블라우스를 벗으려하고 있다.

보미 오늘은 내가 니 블라우스 입고 있을테니까, 내 건 니가 깨끗이 드라
이해서 내일 가져와. (약간 의심스런 눈빛으로 지현 블라우스 보더
니) 근데 니 블라우스 깨끗한 거 맞지?

지현 (거의 포기한 듯 보미 눈 똑바로 보고) 응. 어제 뺀 거야.

보미 (시계를 보며) 그럼 빨리 벗어서 줘. 첫날부터 지각한 줄 알겠네.

지현 위 블라우스를 벗어서 보미에게 넘겨준다.

보미 (지현의 블라우스를 쥐고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너 체육
복이라도 있는 거지?

#19. 양궁장 화장실 앞. 같은 시각.

다급히 화장실을 찾는 덕호

덕호 (관약근에 살짝 힘을 준 상태로 진땀 뒹으며) 아까부터 급해 죽는
줄 알았네. 긴장해서 그런가.... 아니, 근데 여긴 아무리 여고라도 그
렇지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없나?!! (그때 화장실 발견하고는) 여긴
교실이랑은 거리가 있으니까 뭐 사람 없겠지? (살짝 고민하더니)
아, 몰라 싸겠다!!!

덕호 주위를 다시 살피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간다.

#20. 다시 화장실 안. 같은 시각.

나시 차림으로 서 있는 지현. 가방에서 체육복을 꺼내려한다.

지현 (칸 안에 있는 보미에게) 야! 너! 다 갈아입었음 빨리 니 블라우스
줘!

그때, 급히 들어오는 덕호.

지현과 덕호, 서로 마주친 채 잠시 침묵.

지현 (눈 빠질 듯 크게 뜨며) 아-악!!!!!!!!!! (하며 양손으로 몸 가리는 데)
 덕호 (어버버) 저..저기 그..게!!
 보미 E 야! 너 왜 갑자기 소리 질러? 무슨 일이야?!!
 지현 벼..변태야!!!
 보미 E 뭐? 변태?!!
 덕호 난..변..태가 아니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근데 넌 그..큐피드?!!
 지현 응?! (다시 정신차리고 몸 더 웅크리며) (살짝 누그러진 목소리로) 아저씨... (생각난 듯 다시 격앙된 소리로) 아, 진짜! 변태, 당장 안 나가!

지현 급한 김에 비누를 잡아 던지는데 그게 덕호의 이마에 가 맞는다. 지현은 이내 체육복으로 몸을 가린다.

덕호 (짜증내며 혼잣말하듯) 이번엔 비누냐.
 지현 아저씨! 안 나가고 뭐해요?!
 덕호 (부라리며) 나...나갈거야!! 너 아무나 변태 취급 하지마! 어? 너 저 번에도 오해하고 그랬는데 사람 오해하는 버릇 그거..
 지현 (말 자르고 소리 뻑) 얼른 나가요!!!!
 덕호 나간다고! 근데 너.. 몸 좋다?
 지현 (벌게지며) 변태 맞잖아! 당장 안 나가요?!!
 덕호 아니, 뭐 어깨가 좋다고.
 지현 이 아저씨가 뭘 헛소리야! 당장 나..(가!!!)

말 끝나기도 전에 내뺀버린 덕호.

보미 E 야야! 변태 갔어?!어?!

지현, 보미한테 대꾸 않고 덕호 나간 곳 계속 씩씩대며 노려보고 서 있다.

#21. 호미여고 교장실. 아침.

교장, 자리에 앉아 통화중이다.

교장 (닉살 좋게) 이사장님, 오늘 새로 코치를 뽑았는데, 아주 제대롭니다. 국가대표 경험도 있고요, 이번에는말로 우리 양궁부가 제 자리

를 찾을 것 같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잠시 듣다가) 예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웃음) 예, 조만간 회식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호미여고 양궁장. 오전.

회성을 포함한 양궁부 학생들 모여 수군대고 있다.

3학년1 새 코치 얘기 들었어?

3학년2 완전 어이 상실. 메달 하나 없는 허당이래. 이젠 뭐 그냥 양궁부 없애겠다는 소리지.

3학년3 안 그래도 폭력사건 이후로 할 맛 안 났는데. 지금이 딱인 것 같다. 나 그만 두려고.

3학년1 너도?! 나, 어제 학원 등록했다. (한숨) 수능 봐야지이.

3학년3 근데 3학년이 몽땅 그만두면 주장은 어떡하냐?

3학년1 뭘, 걱정이야. 범생이 있잖아.

3학년2 (회성을 톡으로 슬쩍 가리키며) 회성이 재 주장시켜줘. 나중에 수시 쓸 때 한 줄이라도 더 쓰게

3학년3 (쿵쿵대며 웃는) 딱이다 딱.

3학년1 (회성이 보다가) 야! 윤희성! 너 일루 와봐!

회성 (군기 바짝) 네! 선배! (하고 가까이 오면)

3학년1 우리가 이제 양궁부 접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한테 중대한 임무를 주려고. 니가 앞으로 양궁부 주장을 좀 맡아줬으면 하는데. 어때?

회성 (휘둥그레) 네?! 제가 주장요요?

3학년2 그래. (부쩍 띄어주며) 니가 그래도 책임감도 있고, 똑똑하고, 양궁에 대해서도 워~낙 잘 알잖나. 새 코치한테는 니가 좀 말 해 줘. 그만둔다고 말하면 분명 불잡을 텐데, 그건 썬 귀찮다. 응?

회성 (여전히 당황스럽지만 묵묵히 받아들인다) 네, 선배님...

#23. 지현 집 현관. 저녁.

체육복을 입고 귀가한 지현.

지현 엄마 (이상하다는 듯) 근데 넌 왜 체육복을 입고 와? 교복은 어디다 두고?

지현 (가방에 있는 블라우스 꺼내서 엄마한테 주며) 엄마 이거 좀 빨아

줘. 내일 학교 가기 전까지는 말라야 돼.
지현 엄마 (교복 보더니) 이 자국은 뭐야. (냄새 맡고는) 고구마는 어찌다가 이렇게 묻힌거야? (다시 교복 살펴다 목의 상표 보고는) 근데 이거 니 교복 아니잖아? 이거 비싼거 아니냐... 니가 이걸 왜 가지고 왔어?
지현 좀 그렇게 됐어. 부탁해 엄마. (하며 방으로 들어간다.)

#24. 김수녕 양궁장. 저녁.

양복차림으로 양궁장을 서성이는 덕호.
손에는 맥주가 한 캔 들려있다.
캔을 따서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양궁장 과녁을 본다.
복잡한 마음이다.

(인서트/ 과거 회상)

- #9에서 선배의 말 - E 찬희도 청주 와 있다는 거 같던데 소식 들었냐?
- 이강이의 양궁 중계방송 장면 짧게.
- 과거 국대 전지 훈련 중인 덕호와 찬희와 이강의 모습. 밝아 보인다.

착잡한 표정에서 남은 맥주를 다시 마시는 덕호.

#25. 덕호 집 거실. 밤.

덕호 귀가하자 설거지하던 덕호 엄마 돌아본다.

덕호 엄마 여지껏 어디서 뭘 하다가 인제서야 겨 들어 오는겨? 정장은 또 왜 차려 입은겨? 어디 초상이라도 났냐?
덕호 내가 그리 한가한 사람인가? (한 손을 벽에 대고 다른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한껏 품을 잡는다. 목소리를 내려 깔면서) 엄마. 아들 취직했어.
덕호 엄마 (고무장갑 벗고는 다가와서) 뭐여? 취직? 어데? 담방 말해봐야!
덕호 (별 거 아니라는 듯) 그냥? 근처... 호미여고.
덕호 엄마 호미여고? 그라믄 선상님으로?
덕호 뭐 비슷한 거야.

그 때, 덕호 핸드폰 울린다. 전화 받으며 엄마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덕호.

덕호 여보세요?

선배 F 야! 너 호미여고에 들어갔다며? 오늘 들었다.
 덕호 아..네. 그렇게 됐어요,
 선배 F 그릴 거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임마. 그랬음 내가 바로 그쪽에
 연락해 줬을 텐데 말이야.
 덕호 괜찮아요.
 선배 F 그건 그렇고 양궁 평생 안 할 거 같던 놈이 별일이네. 암튼 잘됐다.
 이참에 양궁 다시 시작해봐. 너 인마 코치도 처음이니까 도움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하고!
 덕호 네. 들어가세요.

덕호 전화 끊고 힘없이 양복 자켓을 벗는다.
 자켓을 옷걸이에 끼워 벽에 걸고는 다시 만져본다.
 정신차리려는 듯 크게 심호흡하고는 어깨 펴고 혼자 억지 웃음 지어 보인다.

#26. 호미여고 양궁장. 아침.

트레이닝복 차림의 덕호가 서 있고 그 앞에 희성, 2학년 세 명과 일렬로 서 있다.
 덕호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헛기침만 흠흠하고,
 학생들은 모두 시큰둥한 표정이다.

덕호 (어깨에 힘 팍주고) 다들 이미 들었겠지만, 오늘부터 내가 호미여고
 양궁부를 담당하게 됐다. 음... 나는 새로운 코치 예덕호라고 한다.
 (외운 게 생각이 나지 않는 듯 버벅이며) 우리가 비록 그동안 성적
 이 좋지 아니... 좋진 않았지만, 포기하긴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우리 양궁부가... 그래... 위대한 도전에 나서는 데 모두가 동참해 주
 었으면 한다.

2학년1 저기... 코치님. 저 서울로 전학 가서요. 오늘 양궁부에 마지막 인사
 하러 온 건데.

덕호 그, 그래? 서울로? 뭐, 어쩔 수 없지. 니가 여기 에이스는 아니지?

2학년1 제가요? 전 그냥 만년 후보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2학년1 양궁장 나간다.

덕호 (당당하게) 저 학생은 애석하게도 이 예코치의 지도를 받을 기회를
 놓쳤군.

2학년2 저기..코치님 저두요 엄마가 이제 공부하라고 해서요.. 양궁부 나가

야 할 것 같아요.
덕호 (팬찮은 척) 그래. 뭐, 공부도 중요하지. 알겠다.

2학년2도 2학년1을 따라 나간다.

2학년3 코치님 저두요..이제 양궁 안 하고 공부하려고요.

덕호 (의기소침) 너..도? 수능이 쉽지는 않을 텐데...

2학년3 그래도 대학은 가야죠. 가봐도 되죠?

덕호

2학년3도 양궁장을 나간다.

넋나간 덕호.

그러다 혼자 서 있는 희성 발견한다.

덕호 너는.. 왜 안 가냐?

희성 제가 왜요?

덕호 ...?

희성 (뭔가 생각난 듯) 아! (예의 바르지만 다소 딱딱하게) 인사가 늦었습니다. 어제부로 주장을 맡게 된 2학년 윤희성입니다.

덕호 뭐? 3학년은?

희성 (말없이 고개만 가로로 젖는다)

덕호 넋 나간 채 섰고, 희성 눈 또랑또랑하게 뜬 채로 덕호 본다.

#27. 직지고 양궁장. 오전.

운동복 차림의 찬희가 서 있고,

그 앞에 20명가량의 남녀 양궁부 학생들이 줄 서있다.

학생들 중 맨 앞에는 규진이 있다.

찬희 (당찬 표정으로) 도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 컨디션이랑 기량 점검 해보고, 도대회 참가 선수 결정 할 예정이니까 이번 주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연습하자!

학생일동 네!!!

#28. 호미여고 교장실. 오전.

교감이 교장에게 양궁부에 관련해 보고 중이다.

교감 이틀 뒤에 도 대회 신청이 마감인데, 지금 양궁부에는 2,3학년 학생들이 다 나가고 한 명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교장 그럼 도 대회도 출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교감 네, 한 명 남아있는 학생도 개인전 나갈 실력은 안 되고, 적어도 세 명은 돼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교장 (흡족)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어. 이제 양궁부 없어지는 것도 시간문제겠네요. 그래도 예 코치한테 도대회 얘기는 하지 말아요. 어떻게든 나가보겠다고 설칠지도 모르니까.

교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 직지고 양궁장. 오전.

양궁 연습 중인 학생들. 찬희가 학생들의 상태를 메모장에 체크 중이다.
그 때, 연습 안 하고 가만 앉아 있는 규진 보인다.

찬희 넌 왜 연습 안하니?

규진 그게.. 동생이 아침에 학교 가면서 활을 바꿔서 가져갔어요.

찬희 아, 너희 동생도 양궁 한다 그랬지? 호미여고랬나?

규진 (머리를 긁적이며) 그렇긴 한데.

찬희 아무튼 규진이 너 (미소로 눈치주며) 이번 도 대회 준비 잘해.

규진 코치님께서 대회 나갈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열심히 해야죠. 뭐.
(싱긋 웃으며) 평소대로만 하면 되는 거죠?

찬희 (미소 지으며 규진의 등 툭툭) 까불기는.

#30. 호미여고 양궁장. 오후.

양궁장 구석에 있는 양궁용품을 하나씩 살펴보는 덕호.
성한 화살이라곤 하나도 없다. 화살 깃이 엉망이거나 화살대가 대부분 부러져 있다.
부러진 화살대를 만지작거리며 쪼그려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덕호.
그 때 희성이 다가온다.

희성 코치님. 우리 연습 안 해요?

덕호 해야지.

희성 해야지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덕호 ...(말없이 희성 뺨히 보면)
 희성 애들 다 나가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연습은 해야죠. 아니면 사람
 이라도 모으던가. 무슨 코치가 이래.
 덕호 야! 주장! (어리바리 화내며) 주장이라고 말 함부로 할래? 나 코-치
 야!
 희성 저는 그래도 주장 시늉이라도 내지 코치님은 아무 것도 하는 게 없
 으시잖아요. (혼잣말로) 코치가 처음이라 뭘 모르는 건가...
 덕호 너...!

그 때 양궁장으로 보미 들어온다. 보미 손에는 핑크색 활이 들려있다.
 덕호와 희성 멍하니 보미 쳐다보면,

보미 여기 양궁부죠?
 희성 (명찰 보더니) 응. 1학년. 넌 여기 무슨 일로 온 거야?
 보미 활 가져온 거 보면 몰라요? 양궁부 들려구요.

 덕호 (순간 벌떡 일어나며) 양궁부에... 들겠다고?
 보미 여긴 눈치 없는 사람들만 있나. 꼭 말을 한 번씩 더하게 만드네. 네,
 (또박또박 끊어 말하며) 제 가 양 궁 부 에 들 겠 다 구 요!

#31. 호미여고 양궁장. 시간 경과. 오후.

보미 활을 쏠 준비한다. 그 모습을 감탄하며 보고 서 있는 덕호와 희성.

덕호 이야! 이 정도면 힘도 좋고 안정감도 있고, 자세는 백점짜린데?
 보미 (포즈 잡은 채로 당돌하게) 10점으로 바꿔주세요.
 덕호 어?
 보미 양궁 하는 사람한테는 10점이 최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0점이라
 고 해 달라구요.
 덕호 (비위 맞추며)그..그래! 야야! 완전 10점짜리다! 10점! 하하!
 희성 (혼잣말로 들으라는 듯) 그럼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10점 만점에
 10점'이겠다?
 보미 (뻔뻔하게)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금메달이라도 따야 닉쿤 오빠랑
 CF를 찍을 텐데(활 쏜다.)

10점에 꽃힌 화살을 보고 입 떡 벌어진 덕호, 희성.

희성 지..진짜. 10점이다!
보미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근데, 문제는 맨날 이렇게 쏘지 못한다는 거지. 들쭉날쭉해요. 뭐 그치만, 나 좀 잘하는 건 맞아요.
희성 근데 너 아까 전에 전학생이라 그러지 않았나? 이 정도 실력이면 직지고로 가지 왜 여길 온 거야? 멀지도 않은데...
보미 그러니까 여길 왔죠.

덕호와 보미가 이상하게 쳐다보면

보미 또 말 두 번 하게 만드네. 거긴 잘 하는 애들 많으니까 대회 나가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제일 잘 하는 것도 힘들거구. 근데 여기서는 내가 1등이잖아? 거기다 학교 대표로 큰 대회도 나갈 수 있고.
희성 그래서 일부러 이 학교를 선택한 거다?

보미 새침하게 고개 한 번 끄덕이고, 희성은 넋 놓고 보미 본다.

덕호 (화색) 어쨌든 주장! 혼자서 너무 외롭잖냐~ 권보미랬지? 보미야! 호미여고 양궁부에 온 걸 환영한다!
희성 아까까진 죽는 소리 하시더니. (빠죽이다가 보미 다시 보고는 어설프게 군기 잡 듯) 어쨌든 양궁부 들어온 거 환영해. 난 2학년이고 여기 양궁부 주장 윤희성.

보미 고개 끄덕이며 내키지 않는 억지웃음 지어보일 때, 마침 휴대폰 벨소리 울린다.

보미 여보세요?

#32. 호미여고 교실. 같은 시각.

수업 끝난 빈 교실. 자리에 앉아 통화중인 지현

지현 너 어디야? 니 블라우스 가져왔어.
보미 F 양궁장 앞으로 와.

#33. 호미여고 양궁장 앞. 오후.

핑크 활을 들고 가방을 멘 보미가 걸어오는 지현을 확인한다.

보미 (새침) 넌 왜 학교 마치고 전화 하니? 오전에 갖다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지현 (좀 어이없는) 아침엔 지각했고, 수업시간에는 핸드폰 꺼놔있어. (블라우스 건네며) 자, 여기.
보미 (블라우스 받아들며 의심스런 눈으로) 이거 드라이 한 거 맞지?
지현 (조금 당황하며 거짓말)그..그래!! 얼른 갈아입고 내 블라우스 줘.
보미 (혼잣말로) 양궁장은.. 문 잠겼고....(두리번거리다) 나 저-기 화장실 가서 갈아입고 올 테니까 그 때까지 이 활 좀 들고 있어.
지현 (활 받아들며) 그래.

보미 가고 나서 지현 신기한 듯 활을 살펴본다.

그 때 보미 앞으로 자전거 탄 규진 등장.

갑작스런 남고생의 등장에 이상한 듯 규진을 보는 지현.

규진, 자전거에서 내려서 양궁장으로 들어 가려는데.

지현 (불쑥) 저...! 거기 문 잠겼다는..데요?
규진 어? (활 들고 있는 지현 물끄러미 보더니) 벌써 연습 끝난 거야?
지현 (자신은 없지만 제법 큰 목소리로) 아마도?
규진 그럼 회성이도 집에 갔어?
지현 (모르는 사람이 나와 당황스럽다) 네?
규진 (지현을 양궁부원으로 착각한 규진. 지현이 회성이를 모른다는 게 의아하다) 회성이 몰라? 윤희성.
지현 (왜 그런 것을 묻냐는 듯) 모르겠는데요.
규진 (혼잣말) 아 근데 애는 왜 전화를 안 받아.
지현 (계속 규진을 쳐다보고 있다.)

규진 이상하다 싶지만 이내 포기하고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탄다.

그러다가 다시 고개 돌려 지현을 본다.

규진 근데 그 핑크. 그건 너랑 좀 안 어울리는 거 같다?!
지현 (어이없다는 듯) 네? 이거...

지현 말 듣기도 전에 자전거 타고 저만치 가고 있는 규진.

지현, 그런 규진을 멍하니 보고 서 있다가 다시 활을 본다.

#34. 희성과 규진의 집. 저녁.

복층 집. 현관으로 희성이 들어온다.

희성 (큰 소리로) 다녀왔습니다.

희성 소리 듣고 위층 자기 방에서 나와 계단 아래쪽으로 얼굴 내미는 규진.

규진 너는 연습도 아-까 마쳤다던데 왜 이제 들어오냐?

희성 (계단 위 올라가며) 내가 연습 아-까 마친 건 또 어떻게 알았대?

규진 아까 너네 학교 갔었거든. 근데 양궁장 문 잠겼던데? 글구 휴대폰은 품으로 들고 다니냐?

희성 (규진과 마주서며 의심하는 척) 오빠, 나 감시해? 우리 학교는 왜 또 왔는데?

규진 감시는 무슨. 니가 활을 바꿔서 들고 갔잖아. 내 활 찾으러 갔다가... 암튼 내 활 한 번만 더 들고 가면.. 확!

희성 확! 뭐?! 쏘기라도 하실라구? 아침에 급하게 나가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차피 연습도 별로 안 하잖아.

규진 연습을 안 하긴 누가 안 하냐? 대회가 코앞인데. 근데 너흰? 우린 지금 엄청 땀센데 넌 어째 한가해 보인다?

희성 (처음 듣는다는 듯) 대회? (잠시 생각하다가) 맞다. 도 대회!

규진 (능글거리며) 뭐야. 설마 이제야 안 거야? 너네 양궁부 아니라 그냥 클럽활동 맞지? 취미 삼아 하는 거.

희성 (짜증을 내며) 아, 진짜! 잠깐만...(표정을 가다듬고) 전에 코치가 참가 신청을 했을 리 없고... 아, 이거 새 코치님한테 전화해 봐야 되나?

희성, 어떻게 할까 선 채로 고민하고 있다.

규진 방에 들어가려다 다시 돌아보며,

규진 근데 너네 ‘양궁클럽’ 사람은 많나봐?

희성 (약 올라) 진짜!!! 클럽 아니래도!!

규진 아니다, 그래도 너 주장이라 그러지 않았나? 주장 이름을 모를 수도 있나..?

희성 무슨 소리야 그건 또!

규진 아까 너네 양궁부 왔는데 활 들고 있는 애가 너 모른다던데?
희성 누..가?
규진 핑크활!
희성 (잠시 생각하더니) 아.. 보미?
규진 이름은 나도 모르고. (히죽거리며) 개가 너 모르는 눈치더만.
희성 (소리 뻥) 쟈 오늘 들어온 신입생이라 그래!!!

규진 일부러 안 들고는 방으로 들어가버린다.

희성 (보미라고 확신하며) 보미, 이게 진짜!

#35. 호미여고 지현 교실. 오전.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 있고, 학생들 자리에 앉아 있다.

선생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반이 학교 양궁장 청소를 맡게 됐다.

일순 학생들 아우성.

학생1 양궁장 디게 큰데.
학생2 맞아. 청소하려면 엄청 오래 걸릴걸?
선생님 조용!! (타이트) 양궁부에 사람이 없댄다. 어차피 몇 번 안 하니까
 좀 도와준다 생각하고! 당장 오늘부터... 이번 주는... (청소당번표
 를 훑어보며)지현, 다운, 규리, 미나?! (손을 든 학생을 쪽 보면서)
 그래 니들이 수고 좀 해줘, 알았지?

지현, 손을 들었다 내린다. 양궁장이란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에 잠긴다.

#36. 호미여고 양궁장. 오전.

보미 혼자 앉아 자기 핑크 활에 키티 스티커를 붙이는 중이다.
그때 씹씹대며 희성이 보미한테 온다.

희성 야, 내 이름이 뭐야?
보미 (계속 하던 일에만 몰두하며) 어젠 대답을 두 번씩 하게 만들더니,
 오늘은 이름까지 한 번 더 말하게 만드네요? (딱딱꿍어) 윤.희.성.이
 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희성 그야, 성적이 워낙 나쁘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덕호 (그래도 그렇지, 하고 보는)
 희성 아! 근데 코치님! 도 대회 있는 거 아셨어요?
 덕호 도 대회라니..?
 희성 이 맘 때 늘 있거든요. 코치님 혹시 협회에서 무슨 말 못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신청기한이 내일까지가 그렇던데...
 덕호 내일?
 희성 단체전 나가려면,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랑 보미 밖에 없으
 니까.. 그건 좀 어렵겠네요. (다소 의기소침해졌다)

덕호 풀이 죽은 희성을 보면서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

#38. 양궁용품점 안. 오후.

찬희, 양궁용품점 주인과 이야기 중이다.

찬희 (싹싹하게) 저희 신입부원이 들어와서요, 유니폼 몇 개 새로 주문하
 려구요.
 주인 (살갑다) 그러? 요번에도 잘 허는 아들로 들어 왔는겨?
 찬희 예, 뭐... (웃으며) 아직 갈 길이 먼 걸요.
 주인 역시 중복은 좁지? 도 대회는 이번에도 직지고가 가져 가겠네.
 찬희 (웃음) 아니-예요. 또 띄워주신다. 유니폼 학교로 배달해 주실 수
 있나요?
 주인 허튼, 안 되더라도 강 코치 부탁인데 되게 해드려야지.
 찬희 감사합니다.

#39. 양궁용품점 밖. 같은 시각.

덕호와 희성, 양궁용품점 앞에 다다르고.

그 때 양궁용품점 유리 안으로 찬희와 주인이 대화하는 모습이 덕호 시야에 들어온
 다.

희성 양궁용품점 들어가려하자 덕호 기겁하며 희성 잡아끈다.

덕호 (당황) 자..잠깐만! (하며 건물 옆으로 희성 끌고 가 숨는다)
 희성 왜요?!!
 덕호 그...그냥. 좀 있다가 들어가자.
 희성 그러니까 왜요!! (하더니 힐끗 용품점 안을 보고는 뭔가 눈치 챘다)

는 듯) 혹시 저기 직지고 코치님 때문에 그래요?
 덕호 뭐..뭐?!! 지..직지고?
 희성 경쟁 학교라고 언제라도 하는 거예요? 만화를 너무 많이 보셨나...
 덕호 (혼내 듯, 하지만 작게) 이게...!
 희성 (얼버무리는 웃음) 흐~ (혼잣말 하듯) 우린, 언제 한번 이겨 보나...
 저쪽에선 우릴 신경도 안 쓰는데요, 뭐 전국대회 우승이 목표겠죠.
 덕호 (코웃음치며) 흥, 전국대회 우승?
 희성 멤버도 막강하고... 뭇보다 강찬희 코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덕호 강찬희란 이름을 듣고 움찔하지만, 모르는 척 계속 듣고만 있는데.

희성 (마치 시를 읊듯 정신이 팔려) 시드니 올림픽 양궁 2관왕!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 리커브를 통틀어 1천400점 이상 기록! 거기다 원조 열 짝 양궁 스타~! 코치 경력도 만만찮아요. 벌써 국가대표도 키운 걸
 요.
 덕호 (자조하듯) 너는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아냐?
 희성 아, 제가 좀... (덕호를 보며 웃는다)

그 때, 찬희 양궁용품점에서 나와 반대방향으로 걸어간다.

덕호 그 모습 멍하니 보고 있다.

희성 (경외의 눈길로 찬희를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코치님? 들어가
 죠?
 덕호 (찬희 보던 시선 거두고) 어~, 그래.

#40. 호미여고 양궁장. 오후.

지현과 세 명의 반 아이들과 같이 청소용구를 들고 들어온다.

지현은 무신경한 표정이나, 나머지 세 명은 영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미나 (빗자루로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툭툭치며) 아니, 양궁장은 지들이
 다 어질러 놔놓고 누구더러 청소를 하래?
 다운 잘 쏘기를 해, 착하기를 해? 싸워서 신문에나 나고. 먹장이지 먹장.
 규리 그건 막장이고. 아무튼! 양궁, 그게 어렵나? 그까이꺼 대충 쪽 땡겼
 다 놓으면 되는 거 아냐? (활 쏘는 시늉을 하며) 이렇게? (다른 우
 스꽝스러운 포즈로) 아님 요렇게?

미나 근데, 어떻게? 설마, 우리랑 양궁으로 대결하자는 건 아니지?
보미 (손가락으로 과녁을 가리키며) 저기 과녁 보이지? 너희들 중 한 사람이라도 저 과녁 안에 화살을 맞히기만 하면 내가 진 걸로 할게.

1점이라도 상관없어. 그냥 맞히기만 하면 너희가 이기는 거야. 어 때?

3인방, 머뭇거리며 서로 시선 교환 한다.
그러다 자신이 생겼는지 선뜻 내기 응수.

3인방 (자신감 충만해하며) 그래. 좋아.!

#41. 양궁용품점 안. 오후.

양궁용품점 안으로 들어서는 덕호와 희성.

주인 (싹싹하게) 어서옵서~

덕호 네, 안녕하세요. 저... 여기 호미여고에 새로 온 예덕호 코치라고 합 니다.

주인 (다소 하대하듯 태도가 변한다) 아아~?, 새로 왔다는 분?. 반갑수~. 오늘은 코치 분들이 참 많이들 오시네. 금방 나가신 분도 직지고 코 치님이여.

덕호 아... 네.

주인 강찬희 코치라고.. 알죠? 청주에서는 그 분 모르면 간첩이라... 근데 저 참한 처녀가 안직까지 시집도 못 가고.. 얼굴도 저래 고운데.

덕호 (뜻밖이라는 듯 눈 커지며) ...

주인 그건 그렇고 오늘은 뭐 때문에 오셨나이?

덕호 네, 화살대 좀 몇 개 구입하려고요.

주인 (역시나 하는 표정) 화살대라...

주인, 화살대 찾으러 안으로 들어가면,

덕호와 희성 가만 기다리는데. 덕호 표정 조금 착잡하다.

#42. 다시 양궁장. 오후.

보미의 활을 들고 있는 학생1 주위에 학생1,2와 지현 둘러 서 있고
맞은편에 보미 서 있다.

학생1 활 드는 것조차도 버거워 보인다.

보미 내가 내 활, 아무한테도 안 빌려주는데, 여긴 활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히 다뤄 줘.

미나 (힘들게 활 잡아 올리며) 그냥 쏘면 되는 거지?
보미 어. 아까 내가 보여준 대로 쏘면 돼.

미나, 시위 당겨 활을 쏘지만 과녁에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채
화살이 바닥에 떨어진단다.

미나 아쉬워하고, 보미는 입꼬리 올려 ‘푹’ 하고 웃는다.
이번엔 다운, 활 넘겨 잡아보지만 역시나 엉거주춤이다.

다운 (활 시위를 당긴 채로 보미 쪽으로 돌아보며) 이렇게 쏘는 거야?
보미 (당황한 듯) 야! 그러다 사람 잡겠다! 어디로 쏘려는 거야?

다운 서둘러 과녁 쪽으로 어떻게 쏘긴 하는데,
화살이 과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다.
다운 아쉽다는 듯 입맛을 다시고, 뒤에서 보고 있는 미나와 규리의 표정도 어둡다.

규리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맞춰? (화살을 대고 활시위를 힘껏 잡아당기며
폼은 있는대로 잡고) 으...

규리 역시 활을 힘겹게 잡고 쏘지만 이번에는 화살이 과녁 바로 앞에 떨어진다.

미나, 다운 (아쉬운 듯) 아-.

3인방 뒤에서 아쉬워 할 때 보미는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친다.

미나 지현아! 이제 니 차례야.
지현 ...나?
보미 야 고구마, 멍 때리지 말고 빨리 쏘지~?
규리 (간절한 표정) 니가 마지막이야, 지현아.
보미 (웃으며) 고구마, 너 자신 없구나? 뭐, 쏘기 싫음 안 싸두 돼. 청소
당번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단데, 내가 등 떠밀 필욘 없지.
미나 그런 게 어딴어! 한 명 남았잖아! 지현아 얼른!!!

지현 엉겁결에 활 받아 든다.
잠시 망설이지만,
3인방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활을 잡아든다.

보미 (놀리면서도 불안하다) 고구마! 그 활 조심해. 무식하게 막 다루지

말고.

보미 말을 뒤로하고 지현 화살을 대고 활시위를 당기는데 꽤 볼만하다.
아이들 눈 동그래지고, 보미도 놀란 눈치다.
그 때, 지현 뭔가 결심한 듯 과녁을 향해 조준한다.
모두 숨을 꼴깍 삼킨 채 집중.
마침내 지현의 오른쪽 손가락이 잡은 화살을 놓는다.

제 1 화 끝

슈팅 스타 (Shooting Star)

제 2 화

#1. 호미여고 양궁장 안. 오후.

(1화의 #42 끝부분에서)

지현 엉겁결에 활 받아 든다.
잠시 망설이지만,
3인방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활을 들어 올린다.
그리곤 폼을 잡는 데 꽤 볼만하다.
3인방 눈 동그래지고, 보미도 놀란 눈치다.
그 때, 안경 너머 지현 눈빛 뭔가 결심한 듯, 시위를 강하게 당긴다.
모두 숨을 꼴깍 삼킨 채 집중.
마침내 지현이 활을 쏜다.

지현이 쏜 화살 날아가... 과녁의 6점에 꽂힌다.
보미 표정 일그러지고, 학생들 세 명 환호한다.

| | |
|-----|--------------------------------|
| 3인방 | (올림픽 금메달이라도 딴 듯 기뻐하며) 짹! 맞혔어!! |
| 다운 | 오- 남지현!! 진짜 대단한데!!! |
| 보미 | (말도 안 된다는 듯) 야! 고구마! 너.. 뭐야? |

지현, 멍하니 보미 보고 서 있으면

보미 너 양궁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어??
지현
보미 그래, 맞지? 이거 무효야, 무효~!
규리 (손가락질하면서 격앙된 목소리로) 야! 맞히기만 하면 된다며!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이야!
미나 그래, 너 딴 소리 하지마. 우리가 이긴 거야. 그럼 약속대로 청소는 니가 하는 거다~

3인방,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청소용구를 보미 앞에 짹 펼쳐 놓는다.

미나 (비꼬며) 그럼, 니가 연습하는 양궁부니까 아~주 깨끗하게 청소 좀 부탁할게! 괜히 청소 안 했다가 담탱이한테 걸리면... 알지?! 우린 이만 간다!

애들 뒤돌아 양궁장 나가면서

다운 지현아 뭐해! 얼른 나와!

지현 뒤늦게 청소도구를 그 자리에 놓고 뿔뿔히 표정으로 따라 나간다.

보미 (인정 못하겠다는 듯 애꿎은 빗자루만 발로 툭툭 차며) 짜증나!! 아!! 진짜!!!

#2. 양궁장 밖. 오후.

양궁용품점에서 산 화살대를 들고 양궁장으로 혼자 걸어오고 있는 희성.
그 때 양궁장 안에서 킥대며 걸어 나오는 학생 세 명,
그리고 좀 있다 따라 나오는 지현과 희성 스쳐지나간다.
희성 웬 애들인가 싶어 슬쩍 돌아보는데 그 때 지현이의 명찰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고는 희성, 이내 대수롭지 않게 다시 양궁장으로 들어간다.

#3. 양궁장 안. 오후.

희성이 양궁장 들어서자 뿔뿔히 얼굴로 빗자루질 대충 하는 보미가 보인다.

희성 너 지금 뭐해?
보미 (까칠) 보면 몰라요! 청소하잖아요!

희성 (보미가 소리치자 살짝 놀라지만, 살짝 비웃으며) 착하네~ 혼자서 청소도 다 하고
보미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기에서 져가지고... 암튼 지금 청소하니까 좀 비켜주실래요? 아! 진짜! 여기 대체 언제 청소한 거야?

보미 말이 끝나자 희성 반대편으로 걸어가면서 빗자루질하고
희성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더 묻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다.

#4. 청주 시내 길거리 일각. 오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지현.

뭔가 벅찬 감정으로 활을 잡았던 자신의 손을 본다.

활시위를 당기는 듯한 모양으로 주먹을 쥐면서 아까의 상황을 떠올려본다.

(인서트)

- 조금 전 활시위를 당기던 지현의 모습
- 반 아이들 세 명이 환호하던 모습

#5. 지현 집. 저녁.

지현 자기 방구석에서 옛날 자신이 쓰던 활 꺼내본다.

조심스레 활을 만져보면서 초등학교 때를 회상한다.

(인서트 - 과거회상) - 초등학교인 어린 지현이 활을 쏘서 10점에 맞추고 지현의 부모가 환호하면, 지현이 부모 쪽을 보며 활짝 웃으며 손을 크게 흔들어 인사한다.

지현 활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엄마가 고구마 맛탕을 들어온다.

엄마 지현아! 이거 먹어라. 지훈이는 안 먹는다네.

지현, 황급히 활 넣는다.

엄마 (지현이 활 넣는 걸 보고는 미안한 말투로) 양궁...다시 하고 싶어?
지현 엄마도 참. 무슨 소리야? 그냥 본거야.

엄마 요즘은 통 양궁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니, 요렇게 활을 꺼내보니까
 그렇지. 진짜 아니야?

지현 (체념한 표정으로) 엄마도 알잖아. 나 양궁에 소질 없어. 그래서 그
 만든 건데 뭐.

엄마 (սսսհ한 표정으로) 그게 자식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한 이 못난 어미
 탓인 걸... 미안해.

지현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내가 못 한 건데.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신경
 쓰지마. 고구마는 아직도 다 못 팔았어?

엄마 너도 이제 고구마 질리지? 지훈이는 며칠 전부터 그냥 못 먹겠다고
 저러니까.. 올해 고구마가 영 값을 안 쳐주네. 남은 거 아까워서 버
 릴 수도 없고.

지현 (애써 웃음 지으며) 뭐 어때. 내가 남은 고구마 다 먹으면 되지. 나
 고구마 킬러잖아! 그리고 고구마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데, 말려서 죽 끓여 먹어도 되지, 이렇게 맛탕 만들어 먹어도 되지.

엄마 (기특하다는 듯 지현 머리 쓰다듬으며) 그래, 어유 우리 지현이. 엄
 마가 팔래미 복은 있나보다. 자, 어서 먹자.

#6. 하늘, 새들 지저귀는 소리. 아침.

#7. 호미여고 등굣길. 아침.

희성이 등교하다가 어제 스쳐지나갔던 여학생 3인방이 수군대는 소릴 듣는다.

미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너무 통쾌하지 않았냐?

규리 내말이!! 난 권보미 개 처음 봤을 때부터 완전 채수 없었는데, 어제
 진짜 뺏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니까?

다운 너 솔직히 말해! 권보미 개가 이뻐서 맘에 안 든 거지?

규리 아니거든!! 그냥 애가 잘난 척이 좀 심하잖아. 어제두 봐! 말 하는
 거 봐! 싸가지 없는 거.

미나 그래도 지현이가 딱 쏘서 권보미 기를 팍 죽여 났잖아! 지가 내기
 하자고 해놓고 내기에서 지더니... 어제 개 얼굴 봤지?(ㅋㅋ 댄다)

규리 맞아. 어제 개 속 좀 썩었을 거다. 잠은 제대로 잤나 몰라.

까르르 웃으며 지나가는 3인방.

그리고 세 명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던 희성, 급히 어딘가로 간다.

#8. 호미여고 보미 교실. 아침.

다급하게 보미 반으로 들어온 희성.

보미 핑크색 거울 보면서 핑크색 헤드폰을 끼고 노래를 듣고 있다.

노래는 '10점 만점에 10점'. 보미 흥얼거리며 따라 부른다.

그 때 보미 앞에 희성 앉으며.

희성 너 어제 내기했다고 한 거, 그거 양궁으로 한 거였어?

보미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다) 그건 또 어디서 들었어요? (어제 일이 생
각난 듯 화가 나 헤드폰 벗으며) 아-앙 진짜 짜증나!!! 내가 미쳤지.
그냥 점수 놓고 했어야 되는데, 봐준답시고..!

희성 당최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설명 좀 해봐.

보미 언니는 뭘 그렇게 다 알려고 해요?

희성 주장이니까.

보미 (말싸움도 귀찮다는 듯) 알았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그제..

#9. 호미여고 양궁장 사무실 안. 아침.

사무실 자기 자리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골몰하고 있는 덕호.

컴퓨터 화면에는 대회 신청서 파일이 열려 있다.

덕호 조금 전 양궁 협회 측과의 통화를 떠올린다.

(인서트) 협회 안내원 - E 대회신청서는 오늘 낮 12시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덕호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쯤이다.

잠시 망설이다 단체전 참가선수 명단에 무작정 윤희성과 권보미를 적어 넣지만,
남은 한 칸은 마저 채우지 못한다.

다른 종이에 기존 호미여고 양궁부 선수 명단을 살피던 덕호, 사무실을 나간다.

#10. 학교의 여러 교실. 몽타주. 오전.

덕호가 예전 부원인 것 같은 아이들을 찾아가 간절하게 부탁하지만

아이들 손사래를 치거나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덕호를 거절한다.

#11. 다시 보미 교실. 오전.

희성이 놀란 얼굴을 하고 보미 앞에 서 있다.

는데, 글썄 개가 품을 제대로 잡고 활을 쫓는데(화살이 쏘힌 곳을 손바닥으로 두어 번 치면서) 여기에 딱! 맞췄다는 거 있죠? 보미 말로는 활 좀 잡아 본 솜씨라는데요?

덕호 무슨 소린가 싶어 가만 듣고 있다가 뭔가 생각난 듯 다시 과녁을 본다.
그제야 놀라는 덕호.

덕호 그래서..개가 누구래?

희성 가만.. 개 이름이...(하며 기억 더듬어 보는데)

(인서트) #2에서 희성이 지나갈 때 지현의 명찰 보던 장면

희성 맞아. 지현! 남지현이었어요.!

#13. 호미여고 지현 교실. 오전.

뒷자리 쪽에서 모여 고구마를 먹고 있는 지현과 3인방.

다운 고구마 진짜 맛있다!

미나 지현이 너 덕분에 요즘 맨날 고구마 먹고, 안 그래도 아침 안 먹고 와서 점심 먹기 전까진 완전 배고픈데.

지현 요즘 우리 집에 고구마가 많이 남아서. 내일 또 가져올게.

규리 (지현이를 자랑스럽게 보며) 그건 그렇고 남지현 너~ 완전 다시 봤어. (호들갑떨면서 팔을 걷어 들이밀며) 나 아직도 소름 돋아 있는 거 봐. 근데 너.. 옛날에 양궁 했었어?

미나 맞아, 나도 묻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까이꺼라고 하긴 했지만 막상 하려니까 진짜 어렵더라.

규리 (활을 힘겹게 당기는 포즈를 취하며) 그러니깐! 아예 당기지도 못하겠던데? 근데 넌 품도 제대로 잡고 거기다 맞추기까지 했잖아! 그것도 6점이나!

다운 (좀 더 확신에 차서) 너 양궁 했었지? 그치?

지현 아...그게...영... 예전에 잠깐...

규리 역시... 근데 왜 그만뒀어?

지현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아냐 뭐. 그냥.

다운 (고개를 끄덕이며) 하긴, 양궁 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 그리고 보면 권보미 개는 집도 부잔 가봐? 활도 뭔가 핑크색에 예쁜 게 비쌀 거

미나 같던데?
하긴 뭐 하나 하려면 요즘은 돈 없으면 힘들다니까. 괜히 꿈도 꾸지
말아야지.

지현 그 소리에 약간 착잡한 표정으로 고구마 먹는다.

#14. 호미여고 양궁장 사무실 안. 오전.

덕호 다시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초조한 듯 다리를 떨며 모니터를 보고 있다.
고개 들어 시계 보니 11시45분이다.
시계와 컴퓨터를 번갈아 보다가
마음이 급해진 덕호, 남은 칸에 “남지현”이라 적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15. 직지고 양궁장. 오후.

찬희 맨 앞에 서 있고,
그 옆으로 세연을 포함한 남자 셋, 여자 셋 양궁부 신입부원 서 있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규진 포함한 직지고 2, 3학년 양궁부원들 서 있다.

찬희 입부 테스트를 통과한 1학년들, 어렵게 들어 온 만큼 열심히 해서 직지고의 양궁부에 꼭 필요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 (유니폼을 꺼내며) 이젠 너희들이 앞으로 입게 될 유니폼이야. 지금부터 이름 부르면 유니폼 받아가고,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볼까. 먼저 남자 부원부터!

찬희가 남자 신입부원 한 명씩 불러 유니폼 건네주면
받으면서 한 명씩 자기소개 한다.

찬희 그 다음! 여자 신입부원!

여자 신입부원들 차례로 유니폼 받고 소개하다가 세연 차례가 되어

찬희 진세연!

세연 당차게 대답하고 나가서 유니폼을 받는다.
다른 애들과 다른 반응이다.
학생들 몇 명은 ‘오-’하고, 여자애들 몇 명은 견제하는 눈빛이다.

세연 (사람들의 시선이 익숙한 듯 당당하게) 안녕하십니까? 진세연이라고 합니다. 목표는 전국우승!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직지고를 빛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박수치는 사이에서,
규진 무심한 듯 세연 바라보다가 귀찮다는 듯 먼 산을 본다.

#16. 호미여고 지현 교실 앞. 쉬는 시간. 오후.

지현 반 앞에서 서성이다가 반으로 들어가려는 학생을 붙잡는 덕호.

덕호 혹시 이 반에 남 지 현 이라고 있냐?

학생 네, 그런데요?

덕호 그럼, 좀 불러줄래?

학생 (덕호를 이상한 듯 아래 위로 훑더니 교실 앞 문에서) 지현아! 누가 너 찾아 왔는데?

잠시 후, 지현이 나온다.
서로 마주친 덕호와 지현.

지현 (표정 일그러지며) 변태 아저씨?!

덕호 (표정 일그러지며) 넌.. 큐피드?!

#17. 직지고 양궁장. 오후.

규진이 활 쏘려고 포즈 잡고 있다.

그런 규진 보며 여자 신입부원들 호들갑이다.

여자부원1 아,,,진짜! 내가 저 선배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는 거 아니니...! 저 조 각같은 얼굴 좀 봐...

여자부원2 얼굴뿐만 아니라 실력까지, 정말. (혼자 상상에 잠기며 미소 짓는다)

여자부원1 어쩜 저렇게 완벽할 수가?

세연 글썄...

세연의 말에 켜 뒤흔드는 듯 세연 쳐다보는 신입부원들.

세연 (일부러 규진 들으라는 혼잣말) 홀딩이 별로잖아. 뭐 직지고 에이스도 별거 없네. 로우앵커(※활을 톱 밑에 고정 시키는 방법)도 멋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 같고.

규진, 세연 말 들었으나 아랑곳 않고 활 쏘는데 화살 10점에 정확히 꽂힌다.

이내 세연과 눈 마주치고는 비웃는다.

신입 여자부원들 규진 슈팅에 다시 한 번 소리 지르며 호들갑,

뭔가 심술 난 표정으로 규진 보는 세연.

#18. 다시 지현 교실 앞. 오후.

지현 기겁하며 노려보면, 덕호 잠시 상황 파악 안 되는 듯 생각하더니

덕호 그럼..혹시 니가 그 남지현?

지현 (혼잣말하듯)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데... (빠히 쳐다보며) 그런데요, (힘주어)변태 아저씨?

지현 소리에 학생들 웅성거리며 이상한 눈빛으로 덕호 본다.

덕호 야! 큐피드 너! 내가 예전부터 계속 아니라고 말했는데, 사람 말도 안 들어보고..

지현 (O.L)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덕호 (목소리 조금 키워) 내가 왜 나가냐? 어?

지현 이 변태가? 여기 학교라니까, 선생님 부를 거예요!

덕호 (다시 침착하게) 그제.. 아니라 잠시만 나가서 얘기 좀..

지현 (O.L) 나가긴 어딜 나가요!?! 진짜 이 아저씨 변태 맞네!

학생들 점점 모여며 수군대면

덕호 (어색한 듯 웃으며 손사래 치는) 아..애들아. 아니야..나 변태..아니야... (지현보고는) 야! 너! 진짜!

지현 (소리 뻑) 아저씨 변태 맞잖아요! 여자 화장실도 들어오고!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덕호 (몰려드는 애들 보면서 뭔가 쪽 팔리는 듯) 야!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나?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하고 획 돌아 가버리는)

지현, 어이없어 씩씩대며 덕호 뒷모습 보고 서있다.

#19. 호미여고 복도. 오후.

덕호 씩씩대고 걸어서 나오는 길에 휴대폰 올린다.

덕호 여보세요?

주최측 F 예덕호 코치님 되시나요?

덕호 네, 그런데요?

주최측 F 오늘 도대회 참가신청서 내셨죠?

덕호 아..네. 네!

주최측 F 신청서 접수 됐습니다. 참가선수 확인 다시 한 번 할게요. 윤희성, 권보미, 남지현 학생. 맞죠?

덕호 (아니란 말 못하고 마지못해) 아....네.

주최측 F 그럼 내일 대회 요강 및 설명을 위한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덕호 내일요?

주최측 F 네, 저희 규정 상 해당코치는 필히 참석하셔야 됩니다.

덕호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한숨 폭폭 내쉬며 머리 박박 긁는 덕호.

#20. 호미여고 양궁장. 시간경과. 오후.

보미는 한 쪽에서 연습 중이고,

활 튜닝하던 희성은 덕호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활을 놓고 급히 덕호에게 간다.

희성 남지현 개는 만나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덕호 그제.. 잘 모르겠다.

희성 그게 무슨 말예요? 대회신청서도 내셨잖아요. 개 꼭 데려와야 된다
 고요!

덕호 개가 싫다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희성 싫대요?

덕호 (생각하더니)..아니..꼭 그런 건 아니고.

희성 혹시 말도 못 꺼낸 거예요?

덕호 (멈칫)..

희성 (조근조근 쏘아 붙이는) 한 명이 아쉬운 때에... (고개를 가로 저으

며) 코치님은 대회 나갈 생각이나 있으신 거예요?
 덕호 (보미쪽 보더니 말을 돌리며) 보미야! 너도 이쪽으로 좀 와봐.
 보미 (다가와서는) 왜요?
 덕호 넌 남지현이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미 남지현? (잠시 생각하더니 버럭) 6점짜리? 고구마?!
 덕호 고구마는 또 뭐야? 암튼 그건 됐고 남지현을 우리 양궁부에 데려오
 려고 하는데, 어때?
 보미 말도 안 돼. 6점 밖에 못 쏜 앤데. 그 정돈 아무나 다 쏓요!

그 때 희성 무언가 뜨끔한 표정

덕호 그래도 희성이 말로는 쏘 본 것 같다며.
 보미 하여튼 개는 안돼요!
 희성 너 남지현한테 내기에 져서 그러지?
 보미 아니거든요!
 희성 니 목적이 주목받는 거 아니야? 남지현 들어오면 단체전도 나갈 수
 있잖아. 그럼 너는 한번이라도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거 아냐?

보미 잠시 생각하더니,
 뭔가 안 내키지만 희성 말 맞는 것도 같아 가만있는.

덕호 (혼잣말로) 음, 어떻게 데리고 온다?.....

#21. 다시 지현 교실. 시간경과. 오후.

지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청소3인방 중 1명 다가와서는 말 건다.

다운 아까 그 코치는 왜 온 거야? 근데 그 사람 진짜 변태야?
 지현 (조금 놀라며) 코..치?
 미나 응. 그 사람 우리 학교 양궁부 새로 온 코치잖아.
 지현 (더 놀라며) 양궁부?

연이어 다가오는 청소 3인방 나머지 둘

규리 (손으로 목을 치는 액션을 취하며) 폭력 사건 땀에 저번 코치 찢리
 고 새로 뽑았잖아. 근데 그 코치 은근히 잘 생기지 않았냐?
 다운 근데 변태라잖아.. 좀 그렇다...

지현 잠깐 머릿속 복잡한 듯 생각에 잠기는데,

다운 근데, 그 양궁부 코치가 왜 널 찾아왔대?

미나 아! 혹시 어제 너 내기 이긴 거 듣고 온 거 아냐? 자기네 양궁부 들라구.

지현 그게 무슨.. 그런 걸로 양궁부 들면 다 양궁 한다 그러잖나. 게다가 그 아저씨는 변태야.

다운 (지현이 말 듣지도 않고) 그럼 권보미 때문인가? 개가 졌다고 너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가?

미나 하긴! 권보미 확 쫓았을 거야. 우리가 봐도 너 어제 꽤 그럴 듯 해 보였는데!! 딱 쏘는데 진짜 멋있었다니깐?! (활쏘는 시늉을 하며)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낸 로빈후드 같았달까.

규리 (두 손을 맞잡으며) 오오! 로빈후드! 청소노역에서 날 구해줘요!

3인방 깔깔 대는데, 지현 손을 턱에 괴고 멍하니 있다.

#22. 호미여고 양궁장 사무실. 오후.

덕호 학생기록부를 넘기고 있다.

그러다 지현의 기록부 발견.

지현의 기록부를 찬찬히 읽어가는데,

특이사항 란에 ‘중앙여중 양궁부 활동’이라고 적혀 있다.

양궁부 활동이라는 글자에 손가락을 짚어보는 덕호.

뭔가 떠올린 것 같은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내든다.

덕호 네, 거기 중앙여중 교무실이죠? 저는 호미여고 양궁부 코치 예덕호라고 합니다.

#23. 중앙여중 앞. 오후.

중학교 전경이 펼쳐지고

연습 중인 양궁부 중학생들 차례로 보인다.

덕호 중앙여중 코치와 인사하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

덕호 E 남지현이라는 학생이..

#24. 중앙여중 양궁장 사무실. 오후.

중앙여중 양궁부 코치와 덕호 마주보고 앉아 있다.

덕호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남지현 학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중앙여중코치 아뇨, 괜찮아요. 근데 지현이를 양궁부에 영입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덕호 네. 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양궁을 했다는 소릴 들어서 확인 차 들렀습니다.

중앙여중코치 (뭔가 떠올린 듯) 지현이라면... 초등학교 때 대단한 선수였죠. 초등부 대회에서 상도 받고. 하긴 그래서 우리학교 양궁부에서 스카웃했으니.

덕호 (뜻밖이라는 듯 귀담아 들으며) ...

중앙여중코치 근데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성적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주위에 잘 하는 애들도 늘어나고 해서 그런지 많이 묻혔죠. 그러다가 3학년 가을썸에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덕호 그렇게 그만둔 겁니까?

중앙여중코치 별 수 없었죠. 가정형편도 문제였어요. 지현이네 집안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까지 오셔서...

덕호 아..그랬군요. 그럼 혹시 남지현 학생의 경기 자료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 까요?

중앙여중코치 알겠습니다. 이리로 오시죠.

중앙여중코치, 덕호를 데리고 사무실에 붙은 자료실 안으로 들어간다.

#25 중앙여중 양궁장 사무실 옆 자료실. 오후.

중앙여중 코치, 안쪽 책장에 경기영상 CD들을 뒤지며

중앙여중코치 남지현이... 남지현이가...(무언가를 찾은 듯) 아 여기 있습니다.
(CD를 하나 꺼내어 덕호에게 건네며) 2학년 가을대회입니다. 이게 마지막 출전대회군요.

덕호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중앙여중코치 3학년 때는 대회 출전을 못했으니... (잠시 씩씩해 있다가 뭔가 생각난 듯) 아! 그렇지! 입학 때 스카웃 자료가 있습니다.

코치 다시 일어나 책장에서 CD 한 장을 다시 찾아 덕호에게 건넨다.

덕호 진지한 표정으로 CD를 받아들고

중앙여중코치 자료는 천천히 보시고 돌려주셔도 됩니다.

덕호 아, 네. 감사합니다.

#26. 직지고 양궁장 일각. 오후.

세연 막 연습하려는데 찬희 다가온다.

찬희 세연이 너는 이번 도 대회에 선발로 나갈 거야. 니가 나간다는 건 못 나가게 된 선배도 있다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세연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네! 코치님. 걱정 마세요.

찬희 다른 아이들을 봐주러 가고

세연, 도도한 폼으로 활 조준하려는데,

뒤에서 규진이 다가와 한마디 건넨다.

규진 뭐, 선배들도 다 - 제치고 주전 자리 꿰찰 정도 실력이면 어느 정도지 보려고 했더니, 별로잖아.

세연 폼 잡은 채로 표정 굳는다.

규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일전에 세연이 그랬듯 신경을 긁는다.

규진 요령도 없고 감각도 없고. 그냥 책에서 본 그-대로잖아? 실전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도 이렇게 쏠 수 있을까?

끝내 참지 못하고 세연 돌아서서 규진 노려보면,

규진 모른 척 하며 휘파람 불면서 반대쪽으로 가버린다.

#27. 지현 집 지현 방 + 거실. 저녁.

지현 방 한 복판에 가만 누워 있다가, 반 친구가 했던 말 생각 한다.

(#21에서 미나의 말) E 아! 혹시 어제 너 내기 이긴 거 듣고 온 거 아냐? 자기네 양궁부 들라구.

지현 '에이 아닐거야'라는 식으로 고개 젓다가

결국 활을 꺼내려 서랍 앞으로 가 앉는 지현.

그런데 활이 있던 곳에 아무 것도 없다.

지현 당황하여 거실로 나간다. 거실엔 지현 엄마와 아빠가 TV를 보고 있다.

지현 엄마! 혹시 내 활 못 봤어?

지현 아빠 아..그거? 오늘 내가 갖다 팔았는데? 그거 안 쓴 지 오래됐잖아. 필
요도 없는 거 집에 모셔 놓으면 뭐 해. 집도 좁은데.

지현 (갑자기 버럭) 뭐! 팔았다고?!

아빠, 엄마 깜짝 놀란다.

지현 엄마 (주춤하며) 그게.. 너도 다시 양궁 안 한다 그랬고... 그래서 니 아버
지가 용품점에 팔고 왔...

지현 (O.L) 팔 거면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지!

지현 아빠 (애가 왜 이러나 싶어) 어차피 안 쓰는 거잖아? 애가 왜이래?

지현 그게 어떤 건데! (문을 쾅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빠와 엄마, 놀라기도 했지만, 괜히 미안한 표정이다.

지현 엄마 (혼잣말로) 재가... 다시 하고 싶나?

지현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현이 지 입으로 그만 두겠다고 한 거잖아?

지현 엄마 아니,, 어제도 활을 보고 있길래...

지현 아빠 그래? 갑자기 왜?

지현 엄마 (걱정스런 표정으로) 글썄요. 어제도 그렇고, 저렇게 화 낼 애는 아
닌데.

지현 방안에 들어가서 서랍을 뒤져 초등학교 때 받았던 전국대회 상을 꺼내 본다.

괜히 서럽다.

메달 만져보며 눈물 그렁하지만 흘리진 않는다.

#28. 덕호 집. 밤.

덕호, 지현의 중학생 때 경기 동영상을 컴퓨터로 보고 있다.

스카웃 자료부터 2학년 대회자료까지 찾아본다.

그 때 덕호 엄마 덕호 방으로 들어온다.

덕호 엄마 일은 할 만혀?

덕호 (계속 모니터를 보며) 그냥 그래.
덕호 엄마 말뼌세가 뭐 그러? (잔소리 늘어놓는) 요새 일 구하는 것이 설찬히 어려운 가며. 그러니까 너도 군소리말고 앵간하면 잘 버텨.
덕호 (대충) 알았어요.
덕호 엄마 근데 저 아는 누군겨? 시방 니가 갈치는 아여? 근데 아가 눈을 왜 저랴? 계-속 찌푸리면서 깜빡깜빡 하는디? 눈이 개려버서 그런가...

덕호 그 말 듣고는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지현이 습관적으로 눈을 깜박이고 있다.
다시 이전 자료를 돌려서 비교해 보니
뒤의 자료에서만 지현이 쓸 때 눈을 유난히 찌푸리며 깜박거린다.
그것을 본 덕호 무언가 확신한 표정.

#29. 호미여고 일각. 오전.

평소답지 않게 말끔한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양궁장에서 나오는 덕호.
학교 안, 지나가던 지현과 마주친다.

덕호 남지현!

지현, 자기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면 덕호다.
반갑지 않다.
그냥 모르는 척 가려는데.
덕호 다가와서 잡는다.

덕호 야! 불렀으면 대꾸라도 해야지.
지현 (팔 뿌리치며) 또 왜요! (비꼬듯) 변.태.아.저.씨!?
덕호 이게 진짜! 변태 아니래도...! (바로 말 돌리며) 근데 너 안경 언제부터 안 바꿨어?
지현 그건 또 왜요?
덕호 너 눈 계속 깜박거리고 그러잖아? 중학교 때부터!
지현 (지현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 표정을 바꾸고) 근데 그게 아저씨랑 무슨 상관인데요?
덕호 안경 껴도 불편하고, 잘 안보이고 그런 적 없었어?
지현 아! 몰라요! 진짜! 이 아저씨 왜 이래?
덕호 알아보니 니 눈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그래. 너 이거 중요한 문제야.

지현 무슨 뒷조사라도 한 거예요?
덕호 (당황하면서) 그거야..

말 이으려는 데 그 때 희성 등장.

희성 코치님! 세미나 지금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늦겠어요!
우리 대회도 못 나가게 되면 어떡하려고요!

지현, 희성이 말하고 있는 동안 뭔가 깜박한 듯 뒤돌아서 뛰어간다.

덕호 (시계 보더니) 아.. 가 봐야겠다. (지현이 등에다 대고) 남지현! 너는
내 꺼다!

희성 (남지현이라는 말에 가고 있는 지현이를 잠깐 쳐다보더니) 얼른 가
세요! 얼른!

덕호 급하게 교문 쪽으로 뛰어 나간다.

희성 한심하다는 듯 덕호를 보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지현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30. 세미나 장소. 오전.

세미나 장소가 마련된 강연회장에 앉아 있는 덕호.

덕호 주위엔 양복을 입은 코치들이 앞뒤로 앉아서 세미나 자료를 읽고 있다.

그때 막 찬희가 등장한다.

덕호 찬희를 보고 놀라서 얼어 있는데

찬희 주위 코치들과 인사 나눈다.

그 때, 찬희 눈에도 덕호가 들어온다.

찬희 약간 놀라지만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내 덕호 앞으로 다가온다.

덕호 마네킹처럼 굳어 있다.

찬희 오랜만이네. 여기 있다는 소식 들었어.

덕호 (약간 당황한 듯) 어... 오랜만이야.

찬희 잘 지냈어?

덕호 (움츠러들며 머리 긁적) 어... 뭐... 그냥

찬희 호미여고랬지?

덕호 어.. 너는... 직지고지?

찬희 어떻게 알았어?

덕호 그..냥. 어떻게 하다가.

찬희 그래.
덕호 어...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찬희 나?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듯) 난...

그때 멀리서 다른 코치들이 찬희를 부른다.

코치들 강코치~
찬희 (코치들을 보고) 네. 잠시만요. (다시 덕호를 보면서 살짝 웃으며)
 나중에 봐.
덕호 (애써 웃으며) 어... 그래...

찬희, 저만치 떨어진 앞자리에 앉는다.
덕호, 가까운 뒷자리를 잡고 앉지만 아직 정신이 혼미하다.
세미나 설명은 안 들리고 찬희 뒷모습만 보인다.

#31. 지현이네 반 교실. 오후.

지현, 수업을 듣고 있다.

(인서트) - (#29에서 덕호의 말) E 안경 껴도 눈 때문에 불편하고, 잘 안보이고 그런 적 없었어?

지현 시야로 P.O.V, 칠판의 시야가 흐릿하니 초점이 안 맞다.

(인서트) - (#29에서 덕호의 말) E 남지현! 너는 내 꺼다!

지현 턱 괴고 생각에 잠긴다.

#32. 식당. 오후.

세미나 후 코치들 모여서 식사 중이다.
찬희는 테이블에 여러 코치들과 함께 앉아 있다.
몇몇 이미 안면이 있는 코치들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다.
찬희가 덕호 쪽을 보는데,
덕호, 찬희를 등지고 있는 방향으로 구석에 혼자 앉아
처량하게 밥을 먹고 있다.

코치1 찬희 너는 더 예뻐졌다?
 찬희 (흠칫 놀라 시선을 거두며) 참, 선배도.
 코치2 아냐, 애는 예전이 더 예뻐.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땀을 때!! 카!
 코치3 그리고 보니까 우리 그 올림픽 갔을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지? 아
 니 그럼 도대체 이거 몇 년 만 인거야?
 찬희 음.. 한 10년 만이네요?
 코치3 벌써 그렇게 됐단 말이야? 시간 참 빠르다.
 코치1 그건 그렇고 너 이강이랑은 연락해?
 찬희 (못내) 아, 요즘엔 거의 못 했어요.
 코치2 이강이 그 자식은 요즘도 잘 나가더라? 며칠 전 보니까 아시안게임
 해설 하던데. 역시 잘생기고 봐야 돼.
 코치1 찬희 너도 중계 한 번 해보지 그래.
 찬희 됐어요. TV 나오는 건 별로라.
 코치3 (덕호를 쳐다보며) 그나저나 덕호 저놈은 진짜 복도 없지.
 코치2 그러게. 재가 그래도 그 때 실력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탑이었잖아.
 코치3 (혀를 끝끝 차며) 그러면 뭐해? 국제대회 메달을 따야지. 나가기만
 하면 이래저래 다 말아먹는데. 국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코치1 그래 올림픽 가서도 메달 놓치고 이강이한테 찬희도 뺏겼...

찬희 순간 놀란 표정을 짓고

코치2 (찬희를 의식하면서 눈치 주며) 야야.
 코치1 내가 틀린 말 했나. 허허.. 듣자하니 호미여고 양궁부도 해체 직전
 이라며. 아무튼 덕호 저 자식은 참 복도 없어. 양궁계의 불운아야.
 불운아.

코치일동 한바탕 웃어젖힌다.
 코치들 큰 웃음소리에 고개를 돌려 찬희네 테이블을 쳐다보는 덕호.
 내용도 모른 채 자기도 괜히 어설픈 웃는다.
 찬희가 애써 시선을 피하자, 덕호 씩씩한 웃음을 지으며
 도로 시선을 거두고는 다시 밥을 처량하게 먹는다.
 코치들 큰 소리로 떠드는 가운데
 찬희, 조심스럽게 시선을 움직여
 그런 덕호의 뒷모습을 애처롭게 본다.

#33. 회성 네 교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아이들 여기저기 퍼져 있는 가운데 희성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교실 밖으로 빠르게 나간다.

#34. 지현 네 교실 앞, 복도. 오후.

아이들 몇몇은 청소하고 있고, 3인방은 복도 창 앞에서 청소도구를 가지고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

희성 너희 반에 남지현이 있지? 개 좀 불러줄래?
미나 지현이 집에 갔는데요.
희성 그래?
다운 네, 오늘 집안일 도울 게 있어서 먼저 갔어요.
희성 (한 발 늦었다는 표정으로) 그래, 고마워

희성 발걸음을 돌리고, 학생일동 희성이 뒷모습을 보면서

규리 근데, 저 언니 양궁부 아니야?
미나 맞아. 아마 양궁부 새 주장일 걸.
다운 양궁부에서 지현이를 스타웃!하는 건가봐!
미나 스카웃이야, 이 멍청아. 역시 지현이는 로빈후드가 틀림없어.
규리 (#21에서의 포즈처럼 다시 두 손을 맞잡으며) 오오! 로빈후드! 어서 날 청소당번에서 구해줘요!

3인방, 깔깔대며 웃는다.

#35. 식당 앞. 오후.

코치들 하나둘씩 헤어지고
찬희 인사 나누고는 덕호한테 다가온다.

찬희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를 많이 못 나눴네. 밥 같이 먹지 그랬어?
덕호 아냐... (애써 담담한 척) 뭐 혼자 먹는 게 편해... 선배님들 말이 워낙 많으시니까.
찬희 그래도... 참, 너희도 대회 나오니 또 보겠지?
덕호 그렇... 겠지.
찬희 그래, 그럼 준비 잘 하고. 그 때 또 보자.

찬희 손 내밀면,
덕호 잠시 망설이다 웬지 서글프게 웃으며 악수한다.

찬희 그림 이만 갈게. (돌아선다)
덕호 어 그래, 잘..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찬희 모습
착잡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덕호
찬희 쪽으로 손을 들러 하다가 힘없이 내리며 잠시 그대로 서 있다.
덕호의 초라한 뒷모습

#36. 호미여고 교문에서 가까운 시내 거리. 오후.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던 덕호,
지현과 딱 마주친다.
순간 못 알아보고 지나치려다가

덕호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너!! 잘 만났다!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해야지!!
지현 또 무슨 얘기를 해요!
덕호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검사받으러 안과 가자!
지현 안 가요! 오늘 집안일 도우러 가야 돼요! 그리고 아저씨는 변태잖아
 요!
덕호 나 변태 아니래도! 진짜 잠시면 돼. 가자!

하며 지현 잡아끌고 가려하면,
지현 발악하며 거부한다.
그 때, 규진 정문 안쪽에서 나오면서 활을 맨 채로 통화하며 등장.

규진 윤희성. 지금 너희 학교 앞에 왔어. 활 고치러 같이 가게. 편의점 갔
 다 올 동안 얼른 튀어나와. (하고 전화 끊을 때 저쪽 멀리의 지현과
 덕호를 본다) 엇? 저거... 핑크다!

지현 똥! 이 변태 아저씨가!! 진짜!
덕호 나 변태 아니라니까!
규진 (놀란 표정으로 혼잣말) 변태...? 저 코트..는!! 바바리맨?!! (하더니
 손을 들고) 어이! 거기 변태아저씨!

규진, 부르고 지현과 덕호 앞으로 쏙살같이 이동하여 덕호의 어깨를 잡으며

규진 (정의의 사도나 되는 양 얼굴을 까딱거리며) 어이 아저씨! 아직 해도 안 떨어졌는데 이러시면 아니 되죠.

덕호도 지현도 갑자기 등장한 규진을 동작 그만인 채 똑같은 표정으로
이건 또 뭐냐는 듯 쳐다본다.

덕호 너.. 뭐야?

규진 저요? 보면 몰라요? 사람이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곧 대한민
국 국가대표 될 사람이죠.

덕호 (어이가 없다는 듯) 무슨 헛소리야? 그리고 나는 변태가...

규진 변태가 변태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 봤어요?

덕호 나 변태 아니라(니까)...!!

지현 변태 맞잖아요!

덕호 (지현이 팔 다시 잡아끌며) 아이 씨, 일단 가자고. 줌!

규진 (큰 소리로) 동네사람들~, 여기 변태가 여학생 괴롭혀요~~!!

갑자기 길거리에 사람들 웅성거리며 모여들려 하자

덕호 당황해서 움찔한다.

그 순간, 규진 뒤에 매고 있던 활을 절묘하게 돌려

덕호의 중요부위를 살짝 치고

챗싸게 지현 손 잡아끌고 달린다.

지현도 어리둥절한 상태에서 일단 규진에게 이끌려 간다.

혼자 남겨진 덕호, 중요 부위가 아파 죽겠다는 듯 구부정하게 손으로 잡고 있다.

그 모습이 영락없는 변태 같다.

모여든 사람들 웅성댄다.

덕호 주위를 둘러보고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괜히 큰소리로

덕호 아!! 진짜...!! 나 변태 아니라니까!!

#37. 호미여고 교문 안. 오후.

교문 안쪽에는 규진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고,

지현과 규진이 숨을 고르며 서 있다.

규진 여자애들은 참 힘들겠다. 여고 주변에 변태가 많다더니... 진짜네.
지현 그게... (말하려다 말고 무뚝뚝한 얼굴로) 아무튼 고마워요. (시계를
 보며) 아차... 늦었다. 그럼 저 가볼게요.
규진 (늦었다는 말에 반응하여 다시 여유를 부리며) 야야야 핑크, 내가
 바래다줄게.
지현 됐어요.
규진 늦었다며? (활을 자전거에 묶고 앉으며) 내가 양궁 안했으면 사이클
 선수가 됐을 걸. 안 늦게 해줄게. 얼른 타.

지현, 약간 멍칫거리다가

규진 얼른 타, 얼른. 여기 있으면 또 귀찮아질지 모르니까.

지현, 또 귀찮아 진다는 말에 못 이기는 듯 자전거 뒤에 탄다.

규진, 지현을 태우고 쏜살 같이 자전거를 달린다.

#38. 호미여고 양궁부 앞. 오후.

덕호 진땀을 흘리면서 중요부위의 통증을 느끼며 양궁부로 들어가는데,
희성 활을 들고 양궁부 밖으로 나온다.

희성 세미나는 잘 갔다 왔어요? 우리 대회 나갈 수 있겠죠? 어디 아프세
 요?
덕호 어? 어...아냐... 근데 너는 활 들고 어디 가냐?
희성 활 손 좀 보려구요. 참, 아까 남지현 찾아갔더니 오늘 일찍 가고 없
 던데...

이때 희성의 활이 약간 미끄러져 덕호 쪽으로 기울자

덕호 (버럭대며) 활 좀 조심해서 들고 다녀!!
희성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갑자기 왜 화를 내세요? 암튼 전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덕호 (화넌 거에 무안해 하며) 그. 그-려. 내일 보자. (희성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고개를 돌리며) 근데 아까 그놈은 뭐지? 활을 들고 있었
 던 것 같은데...

#39. 청주 시내. 오후

시내 해질녘의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규진이와 지현이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규진, 약간 속도를 낮춘다.

규진 나 변태 실제로 본 거 처음이야.
지현 근데...저기... 그 사람 변태 아니에요. 여기 양궁부 코치예요.
규진 뭐?! 진짜? (뭔가 실수했다는 표정으로) 니가 아까 변태라고... !
지현 그게.. 좀 사정이 있어서..
규진 그럼 아까 그건 뭐였어? 억지로 끌고 가는 것 같던데?
지현 그러니까... 그게...

#40. 학교 앞. 같은 시각

희성, 활을 둘러매고 혼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다.

희성 아... 진짜... 오라 그래놓고... 어디 있는 거야?

희성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를 걸고

#41. 다시 청주시내. 시간경과. 오후.

규진의 주머니 속 전화기는 진동하지만
규진, 못 느끼고 여전히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지현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전경은 조금 바뀌어 더 변두리로 변해 간다.
규진, 조금 더 자전거 속도를 낮추고

지현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했어요. 3학년 때 그만뒀지만..
규진 왜?
지현 소질이 없었어요. 성적도 계속 떨어지고.
규진 그래서 그냥 그만 뒀다고?
지현 네.
규진 그런데 어찌다 이렇게 활을 쏘게 됐다?
지현 네..
규진 어찌다.. 그 ‘어찌다’라는 게 난 그냥 오는 거라고 생각 안 해. 어찌
 다 뭘 한다는 게, 때론 운명적인 거거든.
지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
규진 왜냐면 나도 어찌다.. 활을 쏘게 됐거든. 근데 이렇게 지금도 활을

쏘고 있고. 아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쏘지만 (살짝 뒤를 돌아보면서
장난스런 미소)

지현 조금 표정이 밝아지며 편해진다.

규진 같이 웃는 표정 짓다가 아차 싶어 얼른 앞을 보며 일단 잠시 달린다.

#42. 지현의 목적지 근처, 오후

조금 더 변두리의 한적한 곳이다.

논밭이 드문드문 있는 시골길.

지현 여기서부터는 걸어가면 되요.

규진, 자전거를 멈춘다.

자전거에 탄 채로 지현이 내리자마자

규진 만약 내가 그만뒀는데도 너처럼 ‘어쩌다’하는 기회가 또 올 지 궁금
 한테? 거기다 코치까지 이렇게 쫓아다니는 걸 봐선, 양궁이란 게 너
 한테 어쩌다 하는 그런 것 같진 않아서 말이야. 나 같았음 이게 내
 운명이구나 하고 당장에 다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지현, 내려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규진을 물끄러미 보면서

다시 바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규진 (분위기 전환하려는 듯) 아, 너 그거 알아? 활이 총보다 좋은 이유?

지현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규진 바라보고

규진 맞춰 봐 얼른~

지현 글썽요... 총이 좀 더 비싸겠죠, 뭐.

규진 (장난 섞인 눈으로 보더니) 너 현실주의자지? 뭐,, 그런 것도 있지
 만... 소음이 적다! 한 번에 두 발 이상 쏠 수 있다! 난 이런 게 맘
 에 드는데.

지현 과연 그런가 싶어 수궁하는 표정 짓고

규진 또,, 우리나라에선 총은 소유가 불법이지만, 활은 가질 수 있다!

지현 이번에는 약간 고개를 끄덕이고

규진 활은 나무로 만드니까 버릴 때 친환경적이다!

지현 물끄러미 쳐다보면

규진 나 좀 똑똑하지? (고개를 까딱하며 헤벌쭙)

지현 어이없어 결국 웃고 이내 규진도 같이 웃는다.
이때 규진 뭔가 생각난 듯

규진 아차!! 내 정신 좀 봐라.

주머니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보니
‘시스터’ 부재중 전화가 꽤나 와 있다.
규진 전화를 걸어 전화기에 대고

규진 아 먼저 갔냐? 미안- 미안- 그리로 갈게.

다시 전화를 끊고는 깔끔한 동작으로
자전거를 돌리고는
멋있는 표정으로 지현을 돌아보고

규진 (조금 큰 목소리로) 활의 제일 좋은 장점은 말이야.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나간다는 거야. 고로,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거지. 멋지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넌 이번에 장애물을 뛰어넘을 기회를 찾은 거 같은데? 그 키는 아까 그 변태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럼 난 간다- (주먹을 들어 흔들며) 파이팅!

지현이 채 인사하기도 전에 자전거를 돌려
쏟달같이 달려 나가는 규진.
지현, 그런 규진의 뒷모습을 보며 우두커니 서 있다.

#43. 호미여고 양궁장, 오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덕호, 사무실을 나와서 양궁장을 지나다가

이제는 활이 뽀뽀 있는
지현이가 쓴 과녁의 6점짜리 지점을 손으로 가볍게 만져본다.
멋쩍은 웃음을 짓는 덕호.

#44. 지현 집. 저녁.

부모님 일을 돕고 와서 피곤한 듯
씻고 방에 들어온 지현,
방구석에 부모님이 팔았던 활이 도로 놓여 있다.
얼른 활을 가져와 책상에 앉는 지현.

(인서트 - 회상)

(#29에서 덕호 말) E 안경 껴도 눈 때문에 불편하고, 잘 안보이고 그런 적 없었어?
E 너 이거 중요한 문제야.
(#42에서 규진 말) E 잘은 모르지만, 넌 이번에 장애물을 뛰어넘을 기회를 찾은 거
같은데? 그 키는 아까 그 변태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지현, 생각이 복잡한 얼굴로 있다가 눈을 질끈 감는다.

#45. 지현의 과거회상

#5에서 회상한 것과 같은 때의 초등학교 시절 대회. 어린 지현이 대회장 풀밭에 앉아 활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활을 고쳐 주는데 청년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청년 (나직한 목소리로) 스테빌라이저가 고장 났구나.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오늘은 끄떡없을 거야.

다 고쳐준 청년 뒤돌아 가다가 다시 지현을 돌아보는데 여전히 얼굴만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청년 (친절하면서도 듄직하게) 꼬마궁사님~ 잊지 마. 바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스테빌라이저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지현, 그 말에 갑자기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는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46. 호미여고 양궁장 앞. 아침.

출근 중인 덕호 양궁장 앞으로 걸어오자 그 앞에 지현 서 있다.

덕호 야! 너..어제..!

지현 (덕호 말 끊으며) 어제 말한 그 검사, 받아볼게요.

덕호 놀란 눈치.

지현 오늘 학교 마치고 여기로 오면 되죠?

하고 가버리자 덕호 얼빠진 채 서 있다.

#47. 몽타주

- 안과에 들어서는 덕호와 지현
- 시력 검사하는 지현
- 안과에서 테스트용 안경 끼고 걸어보는 지현
- 의사 선생님과 이것저것 체크하는 지현

#48. 안과 진료실. 늦은 오후

의사 앞에 덕호와 지현 앉아 있다.

의사 남지현 학생은 심한 부동시군요.

덕호 부...동시요?

의사 네. 쉽게 말하면 양쪽 눈 시력에 차이가 나는 거죠. 지현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구요. 부동시가 심하면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적은 없었나요? 아니면 초점이 잘 안 맞는 다거나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을 자주 깜박거리게 된다는가..

덕호 (끼어들며) 네, 눈을 찌푸린다거나 깜박거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조정은 가능한가요?

의사 네. 시력 교정 안경도 있고, 렌즈도 있습니다. 근데 지현 학생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언제 맞춘 건가요?

지현 중학교 1학년 때요.

의사 네!? 시력은 계속 변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안경을 바꿔줬어야죠! 그렇게 오래 안 바꾸면 눈이 더 나빠져요. 지현 학생 너무 무딘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 병원에 찾아왔을

텐데.
덕호 (지현 잠시 보다가) 양궁 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겠죠?

지현 그 말에 흠칫 놀라 덕호 본다.

의사 (안심 시키며) 네, 뭐 부동시도 눈동자 돌려주는 연습해주면 좋아질 수도 있고요. 안경이나 렌즈도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임동현 선수 같은 경우도 0.1 시력에 금메달 딴 걸로 압니다만...

덕호 (밝게) 네.

의사 있다가 시력검사 결과 받아 가시고, 안경점에 가서서 새로 맞추시면 됩니다.

덕호 감사합니다.

#49. 안경점. 늦은 오후.

한쪽에서 지현 안경을 보고 있고,
덕호는 점원과 대화 중이다.

점원 안경으로 하실 건가요?

덕호 아니요. 무조건 렌즈요.

그 말을 들은 지현 의아해 하며 덕호 보면,

덕호 (넉살 좋게) 그게 아니라, 안경은 운동할 때 불편하잖아? 또 렌즈 끼면, 그게 좀 더... 예쁘지 않나?

지현 대꾸하려다 그냥 보고만 있다.

#50. 안경점. 시간 경과. 늦은 오후.

렌즈 낀 지현 거울 보는데.

좀 달라 보인다.

안경을 벗어 다른 사람 마냥 달라진 지현의 얼굴.

덕호 (의기양양) 이것 봐~ 렌즈 끼니까 인물도 확 산다야. 안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지현, 거울 다시 보는데 자기가 봐도 좀 괜찮아 보인다.
뭔가 신기한 표정.

#51. 청주 시내 거리. 저녁.

덕호와 지현 나란히 걸어간다.

덕호 (기가 잔뜩 살아서) 야! 너 진짜 내 덕에 호강한 줄 알아! 시력 고쳐
주고, 인물 살려주고, 아마 나 같은 코치는 없을 거다?

지현 고맙고 미안한 표정이지만 뭐라 말은 못 하겠고 눈치만 살핀다.

덕호 (실눈으로 지현 보며) 너 지금 나한테 고마워서 그러는 거지? 암,
고맙고 말구. 그래서 니가 나한테 보답으로 해줄 게 있다!

지현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덕호를 올려본다.

덕호 날 따라 갈 데가 있어! 또 변태라고 오해하지 말고! 난 엄연히 호미
여고 양궁부 코치로서 널 데려가는 거니까!

지현, 조금은 고분고분해진 모습이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덕호 (다소 과장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이야.. 애 봐라! 받을 건 다 받
아놓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너 렌즈 값 물어내! 지금 당
장!

지현, 그 말에 발끈해서 쳐다보지만 달리 대꾸할 말이 없다

덕호 돈 없지? 그러니까 따라 오라고.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30분이
면 돼.

뒤돌아서 걸어가는 덕호.

지현 터벅터벅 따라간다.

#52. 김수녕 양궁장 앞. 저녁.

김수녕 양궁장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보는 덕호와 지현.

지현 여긴 왜 온 거예요?
 덕호 양궁장에 활 쏘러 왔지 뭐 하러 오겠냐?
 지현 저 활 안 쏜 지 쫘 됐는데요.
 덕호 (기가 찬 듯) 어쭈? 내 이마에 잘만 쏘아대더니. 너 보미랑 내기 할 때도 쏘다면서?
 지현 어찌다 보니...
 덕호 요번에도 어찌다 한 번 쏘는 셈치고 잘 봐. 싫음 렌즈 값 주던가.
 지현 아저씨, 그건...
 덕호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말 하려 했는데, 나 아저씨 아니거든? 앞으로 나 부를 때는 오빠... 아니 코치님이라고 불러. (단호하게) 따라 와.

이번에도 별 수 없이 양궁장 안으로 따라 들어가는 지현.

#53. 양궁장 안 사대. 저녁.

덕호 활과 화살을 빌려와 적당히 세팅해주고 있다.
 세팅이 끝나자 지현에게 건넨다.

지현 (약간 망설이며) 진짜 그냥 한 번만 쏘면 되는 거죠?
 덕호 알았다니까! 얼른!! (얼굴 짓으로 과녁 가리키는데)

지현 잠시 망설이고는 심호흡 한다.
 그리고 다시 덕호 본다.

덕호 (큰 소리로) 이왕 쏘는 거면. 초등학교 때 느낌으로 쏘봐. 조금 적응 안 될지는 몰라도 전보단 나을걸.

지현 눈을 감았다 다시 뜬다.
 그리고 심호흡을 깊이 하고, 천천히 활시위를 당긴다.
 시위를 놓으며 지현의 눈동자가 커지고.

